

---

8-20-2015

## 도심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를 위한 전도 방안: 서울 승동교회를 중 심으로

Sung Hwan Jung 정성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정성환, "도심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를 위한 전도 방안: 서울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RATEGY FOR EVANGELISM IN A TRADITIONAL CHURCH IN AN URBA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UNG DONG CHURCH**

written by

**SUNG HWAN JU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in Ki Hwang

  
Jung Woon Suh

August 20, 2015

**A STRATEGY FOR EVANGELISM IN A  
TRADITIONAL CHURCH IN AN URBA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UNG DO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HWAN JUNG**

AUGUST 2015

도심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를 위한 전도 방안  
- 서울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정 성 환

2015년 8월

## Abstract

A Strategy for Evangelism in a Traditional Church in an Urba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ung Dong Church

Sung Hwan Jung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research examines historically the way Seung Dong Church, a traditional church in the Seoul metropolis widely considered the mother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has been proclaiming the gospel since its beginning in 1893 up through 2005; pays special attention to its evangelism strategy in 2005 when I was the pastor of evangelism; and suggests an evangelism model appropriate for the urban churches of twenty-first-century Korea.

There are of six chapters in this study. Chapter 1 introduces the purpose, method, and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Chapter 2 presents a biblical definition of gospel proclamation and the theme of evangelism according to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surveys repentance and faith as proper responses to evangelism, and examines principles and methods of evangelism drawn from Jesus and Paul.

Chapter 3 shines a light on the historical first-generation evangelists of Seung Dong Church, which was established in 1893 in Seoul as the second Korean church ever. Chapter 4 studies Seung Dong's evangelism strategy in 2005, which I directed as the church opened its second hundred years of existence.

Chapter 5 analyzes the evangelism strategy personally and communally in the light of the twenty-first-century Korean church. Remembering its history of evangelism, itinerant evangelism and missional church concepts are suggested as appropriate.

Chapter 6 concludes the paper and proposes how urban churches in twenty-first-century Korea should evangelize. I hope that this research provides a

practical solution for evangelizing appropriately in contemporary Korea.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Jung Woon Suh, STD

## 감사의 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몸속에 생명을 두시어 숨 쉬며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88올림픽이 있던 그 해 시월에 결혼하여 만 27년을 함께 살면서 살면 살수록 더 사랑스럽고 귀한 아내 현인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결과로 이 줄지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자라준 딸 예샘, 아들 다울에게도 고맙고, 3년 전 겨울 두 달 상간으로 소천하시어 지금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 한월수 권사님, 장모님 김양임 권사님 감사합니다. 동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형님 종인, 동생 재환, 누나 규은 집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총신대학에 진학하여 신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 김기영 목사님, 서울 승동교회에서 만 6년 사역 후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상훈 목사님, LA에서 이민 목회를 가르쳐주시고 신학교 교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신 박현성 목사님, 세 분의 형님 같으신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로리다 새생명한인교회 오세월 권사님, 서숙자 집사님 외에 모든 교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동거 동락하는 오요하, 이광훈 목사님, 나유미 교수님, 감정에 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논문의 방향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지도하여 주신 주심 황진기 박사님과 부심 서정운 박사님, 그리고 포기할 시점에 연락을 주시고 끝까지 격려하여 주신 조의완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승동교회에서 만 6년의 사역과 후원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사무엘 무어, 확산런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승동교회 전도자들의 전도 행전을 기억합니다. 아울

러 2005~2006년 총동원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학성, 박상철, 성통렬 장로님, 이영옥 전도사님, 홍경자 권사님, 윤영한, 유관중, 정만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수많은 송동 교회 전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12:3b).

2015년 8월 정성환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의의 .....	3
제 3 절 연구의 개요 .....	3
제 2 장 복음 전도의 성경적 원리 .....	5
제 1 절 복음 전도의 어의적 고찰 및 복음 전도의 역사 .....	5
1. 복음 전도 관련된 신약 성경의 단어들에 대한 어의적 고찰 .....	5
가. 유앙겔리제스파이(euangelizesthai : ‘좋은 소식을 말하다’) .....	5
나. 캐루세인(keryssein : ‘선포하다’) .....	7
다. 마르투레인(martyrein : ‘증거하다’) .....	8
2. 복음 전도의 역사 .....	10
가. 구약 .....	10
나. 신약 .....	13
제 2 절 복음의 핵심 메시지 .....	14
1. 하나님의 나라 .....	15
2.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	17
3. 복음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회심과 믿음 .....	18
4. 포괄적인 구원 .....	22
제 3 절 복음 전도의 원리와 방법 .....	24
1. 예수님 .....	24
가. 예수님의 전도 원리 .....	24
나. 예수님의 실제 전도 방법 .....	26
2. 바울 .....	27
가.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 .....	27

나.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	28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31
제 3 장 승동교회의 설립 1세기 전도 사역의 역사적 조망 .....	33
제 1 절 태동기(1893~1903)의 전도 사역과 그 평가 .....	33
제 2 절 초기(1904~1920)의 전도 사역과 그 평가 .....	37
제 3 절 중흥기(1920~1928)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	42
제 4 절 일제 박해기(1928~1945)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	44
제 5 절 전환기(1945~1968)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	48
제 6 절 성장기(1969~1990)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	52
제 7 절 요약 및 결론 .....	55
제 4 장 승동교회의 설립 2세기 전도 사역 현황 및 분석 .....	57
제 1 절 승동교회의 제2세기 선교와 전도 목회 .....	57
제 2 절 전도 행사 중심의 전도 전략 .....	60
1. 나모임 주일 전도 .....	60
2. 전도 대상자 작성 전도 .....	60
3. 수요 전도특공대 전도 .....	63
4. 10.30 총동원전도주일 .....	64
5. 장년2부 전도(탐골공원 노인 전도) .....	68
6. 지하철 종각역 전도 .....	70
7. 해외 파송 선교사의 사역과 교회 개척을 통한 전도 .....	70
제 3 절 요약 및 결론 .....	73
제 5 장 21세기 한국 상황과 승동교회의 전도 전략 .....	76
제 1 절 200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상황 .....	76
제 2 절 설립 2세기 승동교회의 전도 사역의 과제와 방법 .....	81
제 3 절 도심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전도사역을 위한 제언 .....	90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100
제 6 장 결 론 .....	103
제 1 절 연구의 요약 .....	103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	107
제 3 절 연구의 적용 가능성 .....	107
참고 문헌 .....	109
Vita .....	113

## 표 목 차

<표 1> 교회 통계 자료의 비교 .....	35
<표 2> 교회 통계 자료의 비교 .....	35
<표 3> 한국의 도시화율과 교회의 외적 규모교회 통계 자료의 비교 .....	9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고, 이 시대의 상황과도 맞으며, 지교회의 여건과도 맞는 효과적인 전도를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만 6년간 섬겼던(2001-2007년) 서울 도심 인사동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모교회(母教會)<sup>1)</sup>라고 할 수 있는 승동교회의 120여 년 전도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립 2세기를 맞이하여 시행하였던 전도 사역들을 평가하고 한다. 그리고 현재 승동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제시함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 도시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부임한 2001년 당시 승동교회는 남녀전도회의 매 주일 인사동 노방전도와 장년2부의 탐골, 종묘공원의 노인전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제4여전도회는 매달

---

1) 여기서 한국장로교회의 모교회라고 함은 승동교회가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라는 의미는 아니다. 남대문교회의 홈페이지(<http://www.ndmc.or.kr/church/04.jsp>)에 의하면 1885년 6월 21일을 남대문교회 설립일로 보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이고, 승동교회의 전신인 사부엘 부어 목사가 개척한 곤당골교회는 1893년 6월이다. 연못골교회인 연동교회는 1894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서울 도시의 교회들은 부흥회도 함께하고 심지어 세례식도 함께 하였다. 승동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불길이 서울에서 번져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때 승동교회 담임 차상진 목사의 12인의 장서로 일제에 항거한 것이나 1919년 3.1 운동 때는 당시 승동교회 면려회 회장인 김원벽 지사를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에 앞장선 것이나 한신대학교의 모체인 조선신학교가 승동교회에서 시작한 일 등 크고 작은 이유로 볼 때 승동교회는 당시 한국장로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울에서 남대문교회와 새문안교회, 승동교회와 연동교회 등을 한국장로교회의 모교회군(母教會群)이라고 본다.

한 번 안양교도소 제소자와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교회 전반적으로는 전도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해외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다. 교회가 위치한 종로, 중구에서 출석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4분의 1로 다수의 교인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울 주변과 수도권 동서 사방에서 출석하고 있었다. 교회 주변 인사동은 상가와 사무실의 밀집지역으로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뚜렷하였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렇듯이 교인의 구성은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많았다. 당시 한국교회는 2005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sup>2)</sup> 지난 10년 동안 144,000명(-1.6%)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때에 승동교회의 새가족 등록자 숫자는 연간 140~160명 선이었다.<sup>3)</sup> 이렇게 승동교회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년층의 신앙이 뿌리를 깊게 내려 있어 흔들림이 없었고, 장년2부가 계속 전도하여 세례교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유지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전도였다. 당시 유행하던 충동원 전도와 태신자 전도 방법을 도입하되 다른 교회가 하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본 교회에 맞게 적용하였다. 2005년 10월 30일 주일 충동원 전도를 시행하여 초청 목표 달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새가족 등록과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딛게 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도의 열매인 새가족 등록과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승동교회와 같이 도심 지역에 있으면서 전통적인 교회가 갖는 문제점인 동시에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전도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좁게는 승동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넓게는 도시의 전통적인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2006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

3) 승동교회 주보, 2003년 12월 28일 자(2003년 연간 등록자 141명), 2004년 12월 26일 자(2004년 연간 등록자 161명).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의의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문헌 조사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승동교회의 전도 사역에 대한 분석은 주로 승동교회의 역사 관련 편찬물과 교회 요람, 주보, 자료집, 홈페이지의 정보,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는 교회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때에 따라 교회는 여러 사역자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해왔다. 승동교회도 여러 사역자를 통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함으로 오늘의 승동교회를 이루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은 같아도 그것을 담아내는 전도의 방법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특정 지역과 여건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난 120여 년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한국의 현대사와 호흡을 같이한 승동교회가 어떻게 전도해 왔고, 설립 2세기를 맞이하여 실제로 어떻게 전도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천주교의 비약적인 성장과 불교의 점진적인 성장에 반하여 기독교는 정체 혹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2005년 정부 통계가 나온 이후로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장로회 교단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승동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제 3 절 연구의 개요

바람직한 전도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먼저 제1장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범위,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복음 전도의 성경적 어의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전도의 주제를 살펴보고,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회심과 믿음을 살펴본 후 복음전도의 원리와 방법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승동교회의 설립 1세기 전도 사역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설립 2세

기 2005년 총동원 전도 주일을 중심으로 한 전도 사역들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현재 승동교회의 전도 방법과 아울러 도심의 전통적인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제 2 장

### 복음 전도의 성경적 원리

#### 제 1 절 복음 전도의 어의적 고찰 및 복음 전도의 역사

##### 1. 복음 전도 관련된 신약 성경의 단어들에 대한 어의적 고찰

영어에서 ‘전도’(evangelism)라는 말은 헬라어 ‘eu’(좋은)와 ‘angelion’(소식)의 합성어인 ‘euangelion’에서 왔다.<sup>4)</sup> 신약성경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것은 ‘유앙겔리제스따이’(euangelizesthai : ‘좋은 소식을 말하다’)와 ‘케뤼세인’(keryssein : ‘선포하다’)과 ‘마르투레인’(martyrein : ‘증거하다’)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차례로 살펴봄으로 초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성경적 어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복음은 ‘좋은 소식’(good news)이며, ‘선포’(proclamation)이며, ‘증거’(witness)다.<sup>5)</sup>

가. 유앙겔리제스따이(euangelizesthai : ‘좋은 소식을 말하다’)

David Watson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동사는 신약성경 가운데 52번 나오는데, 특히 누가행전에서 25회, 바울 서신에서 21회 나온다.<sup>6)</sup> 이 동사는 간단하게 말해

4) G. E. Sweazey, *교회 전도학 (The Church as Evangelist)*, 천병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71.

5)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77-78.

6) David Watson, *복음 전도 (I Believe in Evangelism)*,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33.

서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약의 70인경(LXX)에서 이것이 가끔 승리의 소식을 전달할 행위에 대하여 쓰이거나(사61:1-3), 시편 속에 두 번 나오는 것처럼(시40:10, 96:2)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유양게리온(euangelion: 복음)이라는 명사는 신약에 72번 나온다. Michael Green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마가는 ‘복음’이라는 명사를 8번 쓰면서도 동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누가는 동사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명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밝히려고 할 때(행15:7, 20:24), 단 2번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명사는 이방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은 동사를 중하게 여겨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보편적인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로마의 문화 환경에서 복음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했던 마가보다는 히브리적 사고에 더욱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sup>7)</sup>

‘복음’이라는 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들려질 수 있고(골1:23),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고후11:4), 신빙성 있는 전통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갈1:12, 고전15:1)는 것이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맥으로 말하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은 나라의 정치적인 과도한 어조를 피하고자 복음을 ‘영생’(eternal life)이나 ‘구원’(salvation), 혹은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과 같은 다른 범주로 이야기하길 좋아하였다. 더 나아가 마가와 같이 복음은 예수와 동일시되었다(고후2:12, 9:13, 10:14). 또다시 십자가(고전15:3)와 부활(고전15:4, 롬1:4, 딤후2:8)이 중심이 된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첫째는 유대인을 위하여, 둘째는 헬라인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갈2:7-8, 롬1:16). 또한, 그는 이 구원하는 복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그것이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이며, 복음을 전파해야 할 소명을 성취한 이유이다(롬1:16, 15-19). 그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이야말로 제사장적 직무이자 신성한 책임이라고 여긴다(롬15:16, 갈2:7). 또한, 바울은 복음에 함축된 심판이라는 주제도 강조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롬2:16,

7)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86.

10:16,21, 살후1:8). 또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다(롬1:16, 살전1:5 이하). 즉 그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란 도덕적 개선의 능력과 아울러 악의 죄사슬을 깨뜨리는 능력을 의미한다.<sup>8)</sup>

나. 케루세인(keryssein : '선포하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약 성경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말은 '케루세인'(keryssein)이라는 동사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령처럼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로 신약 성경에 61번이나 나온다. David Watson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복음 선포'(kerygma)는 8번 나오며, 선포하는 이 곧 '전령'(keryks)는 단 3번 나온다. 이 단어들의 기본 개념은 왕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포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sup>9)</sup> '케룩스'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 전령은 중요한 사람으로서 치외 법권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의 존재였는데 기독교 전도자는 그같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전도자가 된다. '케리그마'(kerygma)라는 말은 주로 바울이 사용하는데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euangelion)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롬16:25). 바울서신에서 '선포하다'(keryssein)라는 동사도 '복음화하다'(euangelizo)라는 동사와 거의 같을 정도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또한 많은 경우 '유앙겔리제스마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선포되는 내용에서 예수가 절대적으로 중심을 차지한다고 한다. 선포는 나사렛 예수의 성육신과 생활과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한 것과 역사의 정점을 알리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케리그마'는 당시 소피스트나 메메로 자신들을 신의 사자로서 생각하는 떠돌이 강사들이 하는 선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언명한다(살전2:3 이하).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미려한 헬라 철학의 문구로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수치스러운 점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전 2:4). 목표에 있어서는 물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소피스트들의 선포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sup>10)</sup>

8)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88-94.

9) David Watson, *복음 전도*, 46.

여러 해 동안 신학자들은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의 설교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고정된 ‘케리그마’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벌여왔다. 어떤 이들은 복음 가운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점이 들어 있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5개 또는 6개, 7개가 들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Michael Green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sup>11)</sup>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라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인간의 생활 속에서 그토록 많이 가져다주신 분이시며, 죽으시고 또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주장과 성취한 일들을 명확하게 입증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들 모두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들의 지적, 영적 배경과 그들에게서 이들이 지닌 지적 영적 배경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곤 하였다.

다. 마르투레인(martyrein : ‘증거하다’)

‘마르투레인’(martyrein : ‘증거하다’)의 부정형인 ‘마르투레오’(martyreo)는 법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한편으로는 사실과 사건을 증거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증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우 모두 증거하는 사람의 자발성과 확신이 중요한 요소였다.

구약성경에서의 용법이 신약성경에서의 용법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는 여호와 자신이 자주 이 동사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다. 여호와와 그 자신을 인간들에게 개방할 때 자신의 증거를 행한다. 그리하여 수백 번 혹은 그 이상으로 ‘증거의 장막’ 아니면 ‘증거의 궤’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된다. 장막은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날 때 자신의 현현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그리고 궤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에 관한 기록 즉 모세 율법을 안치한 상자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와 같이 신약성경에서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나 성령 혹은 성령이 자주 나타난다(행13:22, 15:8, 롬3:21, 히7:8,17). 둘째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하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다(사43:10-12). “너희는 나의

10)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98-103.

11) David Watson, *복음 전도*, 48.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사44:8b). 이러한 구절에서 무능한 이방신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유일성과 영원성 그리고 구원의 주도권을 지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으로 소명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과업은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신약성경에도 사실을 증언하거나 진리를 확증한다는 뜻의 ‘증거’가 지닌 통상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와 메시아의 일치를 가리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성취되는 것이며,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자신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라는 것의 선포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증거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것은 ‘케리그마’와 ‘유앙겔리온’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러한 소명과 힘의 부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구절에서 성취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는 구절과 대응으로 나타난다. 이사야 43장과 44장의 양식이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말, 즉 ‘케리그마’와 ‘유앙겔리온’에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행1:6 이하), 증거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행1:8),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누가는 ‘증인’(martyrs)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도 요한은 선생이신 예수 가 보낸 ‘증인에 의해서’(by witness) 그 증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보낸 증인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세례 요한에 의하여 시작된다(요1:7,8,15,19,32,34, 3:26).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한 증거만이 신성한 인격을 지닌 자의 주장을 대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수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자신이 증거하였다. 물론 이러한 증거 작업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거부되었지만 예수는 다른 지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12)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25-126

13)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27-128.

지적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수를 증거하신다(요5:32,36, 8:1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수가 말하는 신성한 말(요7:16,17, 8:42-27)과 에수가 행하는 신성한 기적과 표적(5:36, 9:4, 10:25)을 보이심으로 증거한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내적 증거이다(요15:26, 16:13).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 적절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실 때에 믿는 자가 나타난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증거’와 ‘믿음’간의 결부를 강조하고 있다(요4:39-42, 요일 5:9,10).<sup>14)</sup>

## 2. 복음 전도의 역사

### 가. 구약

독일의 신학자 겐지헨(Gensichen), 한(F. Hahn)과 같은 학자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사상이 처음에는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을 거쳐 보편주의화 하였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케인(J. Herbert Kane)과 리더(Richard R. De Ridder)와 같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유일신론과 보편주의가 동시에 나타나며 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특수주의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한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그 행동은 없지만 선교 정신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약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약의 선교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신구약의 연속성을 주장한다.<sup>15)</sup>

이러한 면에서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와 같은 구약학자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본다. 창세기 1-11장은 유대인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특수주의 곧 민족주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개의 민족 목록이 나온 이후에 “모든 민족들”과 “각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14)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33-135.

15)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 1995), 14-15.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창12:3).<sup>16)</sup>

선교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어휘적인 고찰에서도 보았듯이 구약에도 전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야 43장 10-12절에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 주시는 말씀이다. 에스겔 33장 7-9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이방에 전도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욥3:1-5; 나1:1, 슥11:1-3).<sup>17)</sup> 특히 요나 선지자의 기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큰 성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 전도 이야기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신 것은 바벨론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이었다(욥1:1,2). 이에 불순종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구원하여 다시 이르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욥3:2)고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아끼시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한다.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구약 전체를 가로질러 신약에까지 이른다. 구약에 나타난 전도의 명령을 찾는다면 창세기 12장 3절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혜의 메시지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축복과 은혜의 기초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도 창세기 12장 3절은 가장 탁월한 복음의 메시지이다.<sup>18)</sup>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민족의 집단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16) Walter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서울: CLC, 2005), 11.

17) 이주영, 강문석, *개인전도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9), 40.

18) Walter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9.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언약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임하게 될 축복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이미 선포된 바 있다. 죄에 따른 저주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죄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이었다(창3:15). 이 해결책에 대한 약속이 셈에게 주어지고(창9:17),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창12:1-3).<sup>19)</sup>

인류는 계속 실패하였다. 그 실패는 타락, 홍수, 바벨탑의 붕괴로 이어졌다. 절체 절명의 순간 은혜가 드리났다. 매번 타락과 실패가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다(창3:15, 9:17, 12:1-3).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창세기 12장 2절에 과감한 선언이 나온다. 내가 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3)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에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더 주어졌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다. 즉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절은 히브리어의 완료시제로 바뀐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주어진 언약의 핵심 목적을 요약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12:3). 이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축복이다. 이 약속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창18:18, 22:18, 26:4, 28:14). 이것은 국가와 같은 정치적인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과(창18:18, 22:18, 26:4) 동시에 가정과 같은 작은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

19) Walter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11-12.



다(창12:3, 28:14, 수7:14). 아브라함을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각 개인과 족속과 그리고 나라에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은 온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것이다. 한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한 것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sup>20)</sup>

#### 나. 신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5)라고 당부하셨다. 동시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된다.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도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음 전도의 범주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어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흠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행8:6-7, 12). 평신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지시로 에티오피아 내서를 만나 전도함으로 세례를 주게 된다(행8:4-8, 26-40).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주었다. 이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언급되어 있다(고전16:19).

20) Walter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25-30.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분명히 복음 전도 사업에 꾸준히 수고하였음을 알게 된다(딤후4:19).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전도 내용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행5:42). 그들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에 힘썼다. 사도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전도 방법은 대중적인 설교였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설교로 복음을 전하였다(행5:42).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행26:1-3),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행26,27) 설교를 하였다. 때로는 서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울서신,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유다서 등 서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우선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교회 중심의 전도였다. 전도는 교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었다. 전도의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나오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약은 교회와 별개로 하여 영혼구원에 대한 전도를 생각할 수 없었다.

## 제 2 절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약속된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한 쪽 면만을 잘못 이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실재와 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만다.<sup>21)</sup>

특히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단 기간에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

2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8.

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인류 사회를 위한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사명은 두 가지로 국내적으로 이웃 전도와 국외적으로는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웃 전도나 세계 선교의 핵심적 메시지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 예수의 복음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핵심인 것이다.

### 1.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가복음 1장 14-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마가가 요약한 예수의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으로써 이루어 낼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공관복음서들은 바로 이 내용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sup>23)</sup>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탁월한 해석을 한 조지 엘든 레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 들어감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후에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천국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영역으로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면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행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제이면서(마12:28) 동시에 미래적 축복이다(고전

22) 안승오, *세계선교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문화사, 2010), 9.

2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6-17.

15:50).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 곧 회심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요3:3) 영적인 내적 축복이면서(롬14:17)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계11:15).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현재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인 동시에 오는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이기도 하다(마8:11).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지니기에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견지에서 제임스 정은 그의 저서 *넵킨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5)</sup> 오늘날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널리 사용하는 전도 방법들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전도 방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생, 즉 죽음 이후의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보통 이런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다리 예화’는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전도 방법은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복음이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교만하게 보이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자주 설교하신 주제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설명하시는데 역점을 두셨다. 사후 세계나 성문제, 도덕성, 결혼, 돈, 율법주의보다 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발산한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복음전도와 세계선교, 사회정의, 재정의 청지기, 직업의 소명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인과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24)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박미가 역 (서울: 시로사랑, 2001), 22, 28-29.

25) James Choung, *넵킨 전도 (True Story)*, 이지혜 역 (서울: IVP, 2009), 241-244.

## 2.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1절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1-2절) 바울은 이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3절 상)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받고, 전함”은 당시 유대교에서 전승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뜻하는 전문어라고 김세윤은 설명한다.<sup>26)</sup>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네 마디로 요약한다. 첫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3절a), 둘째,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4절a), 셋째,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일으켜졌다는 것(4절b), 넷째, 그리고 그가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혹은 보였다는 것이다(5절).<sup>27)</sup>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땅에 묻힘으로 확인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나타남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첫째 마디와 셋째 마디에 “성경대로”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사건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sup>28)</sup>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내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의 승리 소식을 ‘유앙겔리온’(euangelion)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보통 복수로 ‘복음들’로 사용되었다. 사도들은 이 단어를 가져다 사용하

2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7.

2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8.

2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20.

되, 그 속에 새로운 복음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어넣어 단수로만 사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인류를 위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인 것이다.<sup>29)</sup>

### 3. 복음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회심과 믿음

회심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인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각 개인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회심을 보아도 수많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각별한 동기 없이 단 한순간에 신앙을 가진다. 찰나의 시간에 회심을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고투한다. 어떤 사람은 간헐적으로 회심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학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가진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심의 본질에 관해 어떤 말을 더해도 하나님께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본질상 동물 세계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인지, 정서, 행동, 사회, 종교적으로 의미심장한 변혁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을 수도 있고, 세롭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다. 왜냐하면 회심의 본질이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의 내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사전식으로 ‘회심’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약성경은 ‘에피스트로페’(epistrophe)를 회심으로 번역한다.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외에도 ‘에피스트로포’(epistropho)와 ‘메타노에오’(metanoeo), ‘메타멜로마이’(metamelomai)가 있다. ‘에피스트로포’와 ‘메타노에오’는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전환하다’ ‘돌아서다’ ‘반대 방향으로 향하다’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두 단어를 엄밀히 구분하면 중요한 차

2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23-24.

30)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18-19.

이가 있다. ‘에피스트로포’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돌아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며, 회개(metaneo)와 믿음(pistis)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메타노에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돌아서는 결단,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내면의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한다. 회개가 회심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Richard Baxter(1615-1691)는 회심이란 사소한 것이 아니라 결코 꺼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천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탁월함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마음과 생활이 결정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는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심한 사람은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의지와 결심, 새로운 슬픔, 욕구, 사랑, 기쁨 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친구, 새로운 대화를 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슬퍼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가 된다. 그는 매일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간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기도할 수도, 그리스도 없이는 기뻐할 수도, 그리스도 없이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 이제는 지옥이 실제로 비참한 곳으로 인식하며, 천국이 자신의 집이요, 유일한 안식의 장소로 여기게 된다.

성경이 전에는 다른 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에서 보내온 편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된 책으로 믿게 된다. 성경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법칙이 되고, 성경의 약속은 그의 영혼에 영생을 말해준다. 악인들은 전에는 그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슬픔이 된다. 그는 전에는 그들의 죄악을 비웃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31)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30.

기도할 자세를 갖추게 된다(시15:4, 16:3, 빌3:18).<sup>32)</sup>

Richard V. Peace는 그의 저서 *신약이 말하는 회심*에서 가장 전통적인 회심 모델로 바울의 회심을 제시하고 있다. 바울의 회심은 즉각적이고, 신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회심에는 세 가지 운동 방향 또는 태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 단계는 깨달음이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신의 진면목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돌아섬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복종했다는 것이다. 삼 단계는 변화이다. 그의 헌신은 새로운 생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던 옛 사명을 버리고, 기독교인을 만드는 새 사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바울의 회심은 세 가지 상태를 거친다고 한다. 즉 그의 회심은 자신과의 만남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마주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각각의 세 가지 만남에서 세 가지 운동을 감지하였다. 자신을 만나는 깨달음이 있고,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직시하며, 돌아섬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세 단계가 작동한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을 실체 그대로 본다. 그리고 돌아섬이 있다. 곧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그분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 이제 그는 예배와 순종을 율법이 아닌 예수님에게 바친다. 이와 같은 일은 그가 속했던 유대 문화와 헬라문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유대주의의 결합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편협한 유대주의에서 돌아서 보편적인 기독교로 나아가게 된다. 변화의 한 고리로서 핍박자의 노릇을 그만두고, 자기 백성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세 단계에서 세 가지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자기 문화 안에서 무엇을 할지가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영향을 주는 깨달음, 돌아섬, 변화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세 단계 안에 들어 있는 세 가지 움직임은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변한

32) Richard Baxter,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박금산 역 (서울: 지평서원, 2009), 97-99.



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와 다르다고 한다. 기독교의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돌아섬,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로운 삶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한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sup>33)</sup>

바울의 회심 기사는 완전히 흑백 어투로 소개되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태도에서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키는 쪽으로 전환했다. 열정적인 바리새인에서 열정적인 기독교인으로 변했다. 이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는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삶이 변했다.

반면 열두 제자들은 바울과 달랐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오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부름에 응했다. 그들은 직업과 가족마저 포기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꾸준히 일어났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낸 기간 동안 완성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바울처럼 철저히 변화되었다. 복음서에 묘사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묘사된 제자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달아났던 집쟁이에서 그분의 부활을 대중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그러나 그들의 회심의 동력은 바울의 경험과 비교할 때에 전혀 달랐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열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과정’으로 묘사된 것이 주된 차이점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전환은 예수님과 수년 함께 하면서 차츰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열두 제자들이 참된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반면 바울의 변화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열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은 바울의 경험에서 전형적으로 발견 될 수 있는 신약적 회심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sup>34)</sup>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께,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분께로 돌아섬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열두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의 신분을 알게 되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이 복음서의 서언에는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막1:1). 이 복

33)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131-133.

34)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137-139.

음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다(막1:15).

마가는 예수님에게 반응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믿음’으로 여긴다고 한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열두 제자들의 느린 돌아섬을 보게 된다. 깨달음, 회개, 믿음, 돌아섬은 단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의 삶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돌아섬이 점진적이고 불완전 하지만 처음 제자들은 중요하고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이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얻는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바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범주와 동일한 돌이킴이 마가복음 전체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경험과 열두 제자들의 경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울의 돌이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반면 제자들의 돌아섬은 점진적이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돌아섬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돌아섬(믿음과 회개를 통해 죄와 둔한 마음으로부터 돌아섬)이 있으며, 변화(죄사함, 제자도, 새 생명)가 있다는 것이다. 바울 이야기와 열두 제자들 이야기 모두에서 우리는 동일한 회심의 세계를 접한다.<sup>35)</sup>

#### 4. 포괄적인 구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음에 반하여 사도들은 예수를 선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 때 이것은 신약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35)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52, 353.

죽음과 부활에 집중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전하면서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제자도, 성령에 충만한 삶 등을 하나님 나라의 덕목으로 충실하게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가르친 것이다.

복음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는 물론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요1:1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요, 그가 주인으로 우리 각자를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생하는 것이다(요5:39).

릭 리처드슨은 그의 저서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에서 포괄적인 구원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sup>36)</sup> 첫째, 구원은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죄용서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선물은 우리 몸과 존재, 우리의 혼과 영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우리 속에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한다. 둘째, 구원은 개인적이며 또한 공동체적이다. 성령은 개인들만 제창조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공동체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창조하신다. 우리는 신비로운 연결과 연합과 변화를 경험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고립된 개인들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 용서와 그

36) Rick Richardson,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Inviting Friends on a Spiritual Journey Reimagining Evangelism)*,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171-172.

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연결된 것이다. 셋째, 구원은 개인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성령은 인류 역사의 반죽 속의 누룩이시며, 사회를 변혁하신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다른 인종들, 모든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 됨을 삶으로 드리내라고 요청하신다. 넷째, 구원은 인간적이며 또한 우주적이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인류가 자신의 역량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청지기로서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내면의 삶과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갱신되고 우리 삶이 자연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다섯째, 구원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나라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침입해 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굉장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라들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라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라고 하셨다. 이 소식은 나라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수용될 때 나라들이 변화되었다.

### 제 3 절 복음 전도의 원리와 방법

#### 1. 예수님

##### 가. 예수님의 전도 원리

복음서 중에 복음(euangel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38,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원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예수님이 열 두 제자를 부르시는 마가복음 3장 13-15절이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

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원하는 열 두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이다(3:13,14).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이다(3:13). 셋째는 전도를 목적으로 보내셨다(3:14). 넷째는 전도하게 하도록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3:15).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복음서의 기록을 살살이 조사하여 잘 설명한 로버트 콜먼은 그의 저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8가지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7)</sup>

첫째, 예수님은 열들을 선택하여 집중하셨다(선택).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동거). 주님의 제자들은 일정한 의식을 따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교훈에 참여함으로써 구별되었다(요18:19).

셋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성별). 예수님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다.

넷째,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을 주셨다(분여). 예수님의 생애는 주시는 생애였다. 곧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거저 주셨다(요15:15, 17:4,8,14). 주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 아무것도 감추시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것이다.

다섯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시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도록 배려하셨다. 예수님의 경험은 전도에 영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기도의 실천과 성경의 사용을 그들 앞에서 되풀이하여 보이심으로 가르쳐주셨다(눅11:1-10, 마6:9-13).

여섯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위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일을 인계받아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까지 키우는 일에 매달리셨다.

일곱째,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점검하셨다(감독).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끝에는 으레 자리를 같이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자신과 같은 일을

37)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21ff.

하면서 누린 복된 사역을 함께 나누시며 점검하셨다.

여덟째, 예수님은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재생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온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은 자들을 재생산하실 계획이셨다.

#### 나. 예수님의 실제 전도 방법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 전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전도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제적인 전도 방법의 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수님의 전도는 의도적이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보통 다니시던 요단 동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요4:4). 그 이유는 수가성의 여자를 비롯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것이다.

둘째, 공동 관심사를 조성하셨다.<sup>38)</sup> 당시 예수님이나 사마리아 여자에게나 물은 아주 긴요한 것이다. 이 물을 소재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요 4:7).

셋째, 논쟁을 거부하는 것이었다.<sup>39)</sup>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사마리아 여자가 제기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논쟁 속으로 휘말려들기를 거부하셨다(요4:9).

넷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다.<sup>40)</sup>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안다면서 여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요4:10).

다섯째, 양심을 일깨워 주셨다.<sup>41)</sup> 예수님은 그녀의 약점을 두드리셨으며, 그녀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 동시에 희망도 품

38) Paul Little, *이렇게 전한다 (How to Give Away Your Faith)*,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1), 52.

39) George Sweeting, *전도의 비결 (How to Witness Successfully)*, 박제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48.

40) George Sweeting, *전도의 비결*, 49.

41) George Sweeting, *전도의 비결*, 50.

게 된다.

여섯째, 자신을 대면하게 하셨다.<sup>4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요4:26). 사마리아 여자에게 메시아인 자신과 대면하게 하셨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든 배척하든 자신이 결정하도록 대면시키는 것이다.

일곱째, 여자의 증거를 장려하셨다. 메시아를 만난 여자가 동네에 가 증거하자 예수님도 이들을 더 유하며 말씀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 2. 바울

### 가.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

조귀삼은 *바울과 선교신학*에서 사도행전을 기본으로 하여 바울의 서신들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sup>43)</sup>

첫째, 바울 전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였다. “구주 예수”라고 호칭한 것은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바울은 “퀴리오스”(롬10:9), “하나님의 아들”(갈4:4)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기독교적 호칭은 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주님 되심은 바울의 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다.

둘째, 바울 전도의 대상은 이방인이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 가운데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고 하였다. 이방인에게로 향한 복음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적인 선포 원리였다. 유대인의 다수가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특권을 상실해 버림으로 말미

42) Paul Little, *이렇게 전한다*, 79.

43)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92-125.

암아 구원에 있어서 모든 우선권의 위치를 내려놓아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셨다(갈1:16).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방인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었다.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갈1:16) 즉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한 것이다.

셋째, 바울 전도의 원동력은 성령이었다. 바울의 전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성령에 대한 구약의 단어는 ‘루아흐’인데 칠십인 역에서 이것이 보통 ‘프뉴마’로 번역되었다. 성령은 사람의 인격과 도덕과 신앙에 역사하신다. 이방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사역의 진부가 성령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고 지휘하신다. 교회의 머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바울 전도의 실체는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다양한 사회구조와 종교들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all things to all men)의 적응을 시도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문화 속에서 순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고백에 문화에 적응하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유대인처럼(고전 9:20-21),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롬10:14), 혹은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긴 자처럼(갈1:8-10) 다양하게 접근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

#### 나.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복음 전도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생활이자 목표였다. 여러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두드러진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역(teamwork)하는 것이었다.<sup>44)</sup> 사도행전에는 ‘우리’(we)라는 표현이 자



주 등장한다. 이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제1차 전도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 간에 마가의 문제로 인한 불화가 있었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방법은 둘이 짝을 이루어 전도하는 팀 전도였다. 제자를 들씩 짝지어 파송한 예수님의 방법 같이(눅10:1) 사도 바울도 이러한 동역 전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라를 동역자로 삼았고(행15:40), 루스드라에서는 디모테를 택하여 동역자로 삼아서 전도하였으며(행16:1-3), 의사 누가를 합류시키기도 하였다(행16:17). 또한, 제3차 전도여행 때도 디모테와 에라스도(행19:22), 누가(행20:5-14)를 동역자로 함께 전도하였다.

둘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였다.<sup>45)</sup> 마지막 발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발전한 제도가 회당 제도이다. 예수님도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은 유대 이외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다. 회당제도가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자유로운 출입이라는 점이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출입할 수 없어서(행21:9)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들 이방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런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 회당은 기독교 전도의 길을 놓아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였다.<sup>46)</sup> 사도 바울은 야손의 집에서(행17:5), 유스도의 집에서(행18:7), 빌립의 집에서(행21:8), 그 밖에 기타 여러 집에서 복음 전도 모임을 가졌다. 때로는 교제하기 위한 모임이었고(행20:7), 때로는 매일 성경연구 모임이었고(행28:17 이하), 때로는 즉흥적인 모임이기도 하였다(행16:32). 가정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각처에 가정은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장소가 되었다.

넷째, 바울의 전도의 초점은 개인적이며 관계 중심적이었다.<sup>47)</sup> 바울은 그의 개인

44)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136.

45)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141.

46)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김정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170-171.

47)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476.

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단 하나의 소원을 위해 소모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디모테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고 썼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의 변화된 간증을 나눔과 동시에 상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을 육성하여 제자화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과정을 밟았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지혜이다.<sup>48)</sup>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사생아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렇게 돌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서신을 보내는 것과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사도 바울이 직접 제방문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목회자를 파송하여 목회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로를 세워 지역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계속해서 교육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여섯째, 사도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였다.<sup>49)</sup> 그는 테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이 주변을 둘러싼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중심지를 만들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안디옥,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마게도냐의 수도인 테살로니가, 로마치하에 있는 그리스의 수도인 고린도, 키프러스의 로마 통치의 중심지인 파포스(Paphos), 아시아의 중요 도시인 에베소 등이 바울이 방문한 곳이었다. 바울은 이 일련의 도시들을 우연히 방문하지 않았다. 이 일은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중요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심으려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일곱째, 바울 전도의 비전은 전 세계였다.<sup>50)</sup> 바울의 가장 큰 비전은 ‘땅 끝’, 곧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동방에서 서방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전체를 걸쳐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가 로마가 가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계 선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의 소명과 불가분의

48)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145.

49)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478.

50)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480.

관계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헬라인과 유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빛진 자였다. 그것은 복음에 기초를 두었으며 전 세계적인 소명이었다. 이 전 세계적인 비전은 바도 바울이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1) '좋은 소식'(good news)이며, (2) '선포'(proclamation)이며, (3) '증거'(witness)이다. (1)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생 곧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다. (2) 복음 선포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의 성육신과 생활과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것이며, 그 역사의 정점을 알리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셨다. 그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한 증인들을 필두로 복음의 복된 소식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선포되며 증거되는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그 행동은 없지만 선교 정신은 면면히 흐른다고 본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이다. 구약의 약속된 이 복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된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 평신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에 힘썼다. 때로는 서신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인류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인 것이다.

본질상 동물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있다. 이런 인간 본성

이 의미심장한 변혁을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기독교의 회심은 돌아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며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지닌다. Richard V. Peace에 의하면 회심은 세 가지 단계와 세 가지 방향을 가진다고 한다. 즉 일 단계는 깨달음이고, 이 단계는 돌아섬이며, 삼 단계는 변화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자기 문화 안에서 무엇을 할지, 이 세 방향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회심은 사도 바울에게는 순간에 일어난 반면 열 한 제자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사람에게 회심하게 하는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포괄적인 구원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구원은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동시에 우주적이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원하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를 목적으로 보내시고,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막3:13-15).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전도하신 것에서 실제적인 전도 방법의 예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전도는 의도적이었으며, 공동 관심사를 조성하시고, 논쟁을 거부하시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양심을 일깨워 자신과 대면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자의 증거도 장려하셨다.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는 전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도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으며, 바울 전도의 원동력은 성령이었다. 그의 전도의 실체는 문화에서 적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도 원리를 따라 바울의 전도는 전도가 그의 목적이자 생활이었다. 바울 전도의 방법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였다. 때로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였다. 그의 전도의 초점은 개인적이며 관계 중심적이었다.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였으며 그의 비전은 전 세계였다.

## 제 3 장

## 승동교회의 설립 1세기 전도 사역의 역사적 조망

## 제 1 절 태동기(1893~1903)의 전도 사역과 그 평가

승동 교회는 1893년 서울 곤당골<sup>51)</sup>에서 태동하였다. 승동교회의 모체가 되는 곤당골 교회는 미국 선교사 사무엘 포먼 무어(Samuel Forman Moore) 목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무어 목사의 한국식 이름은 보통 ‘모삼열’(牟三悅)이라고 부르는데,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모삼눌’(牟三栗)로 표기되어 있다.<sup>52)</sup> 1892년 8월 16일 부인 로즈(Rose Ely Moore)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일본과 부산을 거쳐 9월 19일(화) 정오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마포삼열(Samuel A. Moffet) 목사와 의사 빈톤(C. C. Vinton) 선교사가 무어 목사 부부를 맞이하였고, 그들을 알렌(H. N. Allen)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이래로 17번째로 내한한 선교사였다.<sup>53)</sup>

서울에 도착한 사무엘 무어 목사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한국어를 배우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먼저 온 대부분의 선교사는 보통 ‘장로교 어학위원회’(The Presbyterian Language Committee)에서 한국말을 배웠지만, 무어 목사는 선교사들이 사는 주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집을 얻어 집안일 하는 사람들을 두었다. 또한, 한국어 선생을 두고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어 목사의 한국어 실력은 놀랄 정도로 늘었다. 약 반년 만에 한국인들과 쉬운 말로 대화

51) ‘곤당골’은 ‘곤담골’이라고도 하였고, 이 ‘곤담골’이라는 말은 고운 담으로 연결된 집들이 있는 동네라는 말이다. 이 위치는 현재 롯데호텔과 조선호텔 사이로 대한제국의 황제가 천제에게 제사를 드리던 환구단 바로 옆이다. 일제강점기에 ‘황금정 일정목’이라고 불렸지만 ‘미동’(美洞)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52) 무어 목사 자신이 고종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모삼눌’이라 표기하였다.

53)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서울: 에센에쓰미디어, 2004), 80-82.

하고 공 예배에서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었다. 무어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한국말을 배운 것은 선교부 총무 앨런우드 목사의 편지에도 고무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무어 목사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행 전도와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 목사의 진면목은 교육 사업보다는 역시 전도 사역에 있었다.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은 그가 쓴 여러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4)</sup>

우리는 이곳 현장에서 사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개척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밤 기도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약간 성공적이라고 하여 만족한 나머지 전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또는 우리의 전도가 기록상으로만 성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어 목사가 노방 전도할 때에 큰소리로 외쳤다. 전도할 때 그는 한글 책을 잔뜩 들고 다녔다. 머리가 노란 서양인이 한글로 된 책을 큰 소리로 읽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다. 그때 그는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우상 숭배와 마귀 종교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한국어 실력이 능숙해지면서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렸고, 빈번히 사랑방에 들러 복음을 전하곤 하였다.

1899년 선교 보고에 의하면 표2)와 같이 당시 무어 선교사의 선교 실적을 알 수 있다. 북장로교 선교 본부의 선교 실적 중 무어 목사가 세운 집회 장소 수는 20여 곳이었으며, 그의 총 세례교인 수와 총 교인 수도 모두 10퍼센트 이상이었다. 1906년 선교보고에 의하면 표1)과 같이 현금 총액도 18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보고된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 처소를 세우며, 교회를 개척하여 조선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

54)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85-86.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55)</sup>

<표 1> 교회 통계 자료의 비교<sup>56)</sup>

전도자	통지자(communicants)			신자(adherents)			헌금(contributions)		
	1904	1905	1906	1904	1905	1906	1904	1905	1906
서울지역교회	463	500	517	1070	1150	1519	320	459.40	1314.59
무어 선교사	182	253	334	350	540	1010	83.60	180.90	517.80
샤프 선교사	530	580	640	950	1070	1300	190	420.50	648.50
언더우드 선교사	367	446	409	550	700	1043	66.90	190.16	201.50
웰본 선교사	55	87	71	250	225	400	34.95	139.60	151.12

<표 2> 교회 통계 자료의 비교<sup>57)</sup>

지방과 책임자	집회장소	세례교인	원입교인	총출석교인	
서울	26	500	114	1,650	
경기도 서부 (언더우드)	16	446	112	700	
경기도 남부 충청도 (밀리, 피에타스)	12	89	64	500	
백천 (무어)	20	253	51	505	
강원도 (웰본)	18	71	52	505	
황해도 서남부	28	580	165	1,070	
합계	120	1,939	558	4,650	

순행 전도를 할 때 무어 목사는 주로 월요일에 출발하여 목요일에 돌아오곤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간혹 말이나 가마를 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고,<sup>58)</sup> 때로는 한강 변에 있는 마을들을 배를 타고 전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배를

55) 정준모,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은혜기획, 1999), 29, 30.

56) *General Reports of Stations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1906. 15.

57) *General Reports of Stations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1899. 23.

58) 김영제, *한국교회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4), 119.

‘기쁜 소식’(The Glad Tiding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무어 목사는 서울 주변뿐만 아니라 황해도, 경기도 등을 왕래하면서 전도하였다. 복음을 전하다가 병을 얻어 만 46세로 순직할 때까지 25개 지역에 교회와 예배처소를 개척,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sup>59)</sup>

일반적으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한국 백정 해방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졌다. 수백 년 동안 사회 구조적, 제도적 압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비인간적 차별 대우를 받았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구원 받은 백정 출신 장로 박성춘과 함께 조선 조정에 끈질긴 탄원을 올려 사회적 악습으로 유린당했던 백정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sup>60)</sup>

매마침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갑오개혁이 있었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파타하고 백정과 광대 등 천민신분의 폐지와 함께 공사노비 제도를 없애고 인신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sup>61)</sup> 1895년 4월 12일, 백정 박성춘은 무어 목사의 도움으로 내무아문의 대신에게 소지를 올렸다. 한 달 만에 백정들의 소원을 허락한다는 것과 갓과 망건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포를 입으라는 회답이 내려왔다. 박성춘은 너무나 기뻐서 무어 목사를 찾아와 “이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경우이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 박성춘은 우선 시골에 사는 백정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상의 해방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편지로 띄웠다. 그는 열렬한 전도자가 되어 한 손에는 백정을 해방한다는 포고문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백정들에게 해방과 복음을 선포하였다. 일례로 1895년 10월, 수원에서 약 50여 명의 백정에게 박성춘은 간증하고, 무어 목사는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수원에 백정교회가 세워지고, 1989년까지 경기도 지역에만 132명의 백정 교인이 있었다고 한다.<sup>62)</sup> 무어 목사는 자신의 돈을 들여 전국 방방곡곡에 보낼 360여 장의 포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sup>63)</sup>

“사무엘 무어 목사의 사역은 백정 해방, 우상배척, 사회 계급 타파, 남녀평등 사

59)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87.

60) 정준모,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 116.

61)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갑오경장,”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1* (서울: 동아출판사, 1988), 456.

62) 이덕주, *새로 쓴 개종 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83.

63) *승동교회 백년사* (서울: 승동교회, 1996), 79-80.



상보급 등의 엄청난 열매로 이어졌다. 그러나 1906년 12월 22일 만 46세의 아까운 나이로 요절하면서 그의 사역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어 목사의 소천 당시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무어 목사의 죽음은 한국 복음 전도 사역에 엄청난 손실이며, 그의 전 생애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고 애도하였다. 선교사 마르타 헨들리(M. Huntley)의 표현처럼 무어 목사의 사역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 목사의 사역은 지나치게 교회의 본질만 강조하는 보수주의 영역의 또는 지나치게 교회의 기능만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회 모두 자기를 반성하게 할 역사적 모델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sup>64)</sup>

한국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백정 해방이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그는 한국인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한국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조선 땅에 뼈를 묻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외면하지 않고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목사가 지녀야 할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무어 목사의 전도 사역의 중심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동서 사방을 순행하며 전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회와 예배 처소를 개척 설립하였다. 그리고 최하층민인 백정 전도와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전도, 그의 부인이 주도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가 열매를 맺었다. 무어 목사의 전도는 양반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인 천민과 어린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성경 진리와의 일치하는 것이요, 당시 사회적 개화 분위기와도 맞아떨어져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제 2 절 초기(1904~1920)의 전도 사역과 그 평가

사무엘 무어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가 된 이눌서 박사(W. D. Reynolds)는 선교사회의 치리로 흠어진 교우들이 모인 구리개(동현)교회를 잘 보듬고 목양하여 서울 중앙에 대표적인 교회로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는 탁월한 성경번역가

64) *승동교회 백년사*, 117.

요,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학자인 그는 성품이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력 또한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이러한 그의 성품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구리개(동현)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구리개(동현)에 있던 제중원이 남대문 밖으로 이전하면서 교회는 서울 중앙에 교회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결국, 1905년 8월 1일에 현재 승동 교회(承洞教會)가 위치한 곳으로 예배당을 옮길 수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눌서 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사역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sup>65)</sup>

곽안련 목사(Charles Allen Clark)는 1902년 9월 22일 내한하자마자 동현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다. 이눌서 목사가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1906년 담임목사가 된 곽안련 목사는 승동교회에서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승동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목사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40여 년간 수많은 일을 함으로써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공헌”을 한 선교사가 되었다.<sup>66)</sup>

곽안련 목사가 담임이 된 이후 승동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무이 목사처럼 그도 순행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동시에 소학교 사역을 하였다. 그는 순행전도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그리고 평양과 그 인근에 150개의 교회를 세웠다.<sup>67)</sup> 당시 소학교들은 소위 ‘현대식 초등학교’ 체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곽안련 목사는 1905년부터 학당 체제를 현대식으로 바꾸어 ‘승동 기독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1907년에는 ‘케리마블 기념 여소학교’를 개설하여 여자 교육도 시작하였다. 또한, 문서 선교 사업의 하나로 책방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책방은 교회 앞 길가에 있어서 성경, 쪽 북음, 여타 다른 책들도 팔면서 행인들을 모아놓고 매일 몇 시간씩 노방전도를 하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 교회의 청년회 운동을 모방하여 1904년부터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이 청년회는 주로 학생들이었지만 당시 학생들의 나이가 많아서 면려청년회 또는 면려학생회라고 불렸다. 1907년 1월부터 여학생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 어떤 때에는 2~3시간이나 진행되었고, 너무 재미가 있어 부모들과 다른 어른들도 방청하곤 하였다.

65) 승동교회 백년사, 101, 105.

66)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131.

67) 이호우,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15.

곽안련 목사의 순행전도와 어린이를 위한 소학교 사역,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면려 운동 등을 통하여 승동교회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 1906년 한 해의 연보가 352원 64전이나 모여서 조사의 사례금의 반 정도를 부담할 수 있었다. 같은 해부터는 진도부인의 사례비를 전액 담당하였다.<sup>68)</sup> 이처럼 교회가 서서히 재정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기 시작하였다.

곽안련 목사 재임 시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역들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한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을 서울에서 이어갔다는 것과 서울 중앙에 대표적인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국인 목회자들을 세워 리더십을 이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말한다.<sup>69)</sup> 그러나 1907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전역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부흥 운동의 시초는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롯되었다. 선교사 하디는 이 집회에서 그의 동료들에게 선교의 어려운 점과 한국인들을 멸시했던 일 등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였다. 이 집회에서 그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다. 여러 선교사가 1906년 초 송도(개성)를 비롯하여 경기와 호남지방에서, 그리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곽안련 목사는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밤 기도집회와 사경회가 몇 달을 두고 두세 군데에서 열리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1906년과 1907년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부흥 운동은 감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감정에 도취한 잔치는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회개 운동이었다. 미리 충분한 성경공부를 하였기에 광신적인 요소는 없었다. 이 대 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영적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길함 선교사는 이를 한국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성령의 주재 하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순수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해 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68) C. A. Clark, "Seoul Central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06), 214.

69)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857ff.

이제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다. 양반이라고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종으로 알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하겠다고 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 부흥을 주셨다. ...부흥의 불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불길이 교회에서 교회로, 전도소에서 전도소로 번져 마침내 한국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마음으로부터 기독교 교회가 되기를 빈다.<sup>70)</sup>

1907년 2월 서울 시내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평양에 있는 길신주 목사를 모시고 승동교회에서 경기도 사경회를 열었다. 길 목사가 '성신 도리를 교수할 시'에 청중은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여 중생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성령의 인도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 사경회가 있었던 이후 승동교회는 예배 참석자가 1906년 보다 두 배나 늘어서 평균 250명 모였는데 때로는 400명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이 해에 세례교인이 23명, 학습교인이 46명, 유아세례자가 2명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교회의 세례교인은 129명 학습교인은 54명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절대 가만있지 않았다. 성도들이 나아가 열심히 전도하였다.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여 연보 총액이 536원 48전에 달하였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소학교, 성서공회, 기독교서회, 빈민 구제 사업을 돕거나 추진하였다. 농촌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20원을 보내기도 하였다.<sup>71)</sup>

승동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이제 서울의 중앙에 교회당을 마련하고 재정적으로나, 교세적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다. 선교 사업에도 동참할 만큼 자리가 잡혔다. 그러나 교회당은 여전히 30칸쯤 되는 한옥이었다. 1907년 한국 교회 부흥 운동 이후 대규모의 '도사경회'(Annal Bible Conference) 같은 집회를 열기에 적합한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승동교회당 신축은 1910년 착수하여 1912년 여름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설계는 박안련 목사가 하고, 공사는 중인 모문서(募文序)가 담당하였다. 새 예배당은 '중앙 레비당'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장대한 건물이 되었다. 헌당식을 기행할 때에 *예수교회보*에 기술한 것을 오늘의 철자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sup>72)</sup>

70) W. G. Cram, "The Revival in Songdo,"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112f.

71) The General Report of Station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Seoul Station 1907, 7.

72) 예수교회보, 1913. 3.4: 재인용, *승동교회 백년사*, 125.

경성 중부 승동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벽돌양옥으로 굉장하게 짓고 밑층에는 학교로 쓰고 가운데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좌우에 연결한 큰 방은 무슨 예식을 할 때에 대중이 모이게 하였고 위층에도 예배하는 처소로 마련하고 수난로와 와속등이며 장원과 층계는 양회로 싸였고 마당에는 전도실과 사경처소를 지었고 건축 경비는 합금 2만원인데 4천원은 본 교우가 연보한 것이요 1만2천원은 미국서 보조로 나온다 하고 그 남이는 건축사가 도와준 것과 아직 마감 못한 것도 있다더라. 1913년 2월 16일 오후 2시 50분에 본 회당에서 헌당 예식을 행할시 순서는 여좌함.

드디어 승동교회는 제자리를 찾았다. 재정적으로도 자립단계를 넘어섰다. 조사 2인, 전도부인 1인, 교사 4인, 사찰 1인에게 봉급을 지급했으며, 한 해 헌금이 약 2,500원(\$1,257.21)에 이르렀다. 교세도 늘었다. 세례교인이 178명이요, 신자 총수는 450명이나 되었다. 예배당 건축 이듬해, 1913년 1월 12일~20일에는 '경성 대 사경회'가 열렸다. 이 해 제2회 총회도 승동교회에서 열렸다. 승동교회는 곤당골에서 설립된 이후 분열과 재연합을 경험하며 구리계와 홍문섯골로 옮겨 다니던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칭하는 '중앙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 교회의 중심 교회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sup>73)</sup>

승동교회가 명실상부한 자립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구성해야 했다. 이에 광안련 목사는 박성춘을 영수로 머물게 하고, 이어한을 초대 장로로 장립하여 당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이어한 장로는 평양신학교를 마치고, 승동교회 최초로 한국인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동경 유학생 전도 목사로 가게 되었다. 이어 광안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차상진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다. 부임한지 2년 뒤 3.1운동이 일어나자 차상진 목사는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 등 12명의 연서로 일제 침략을 규탄하는 격문 '12인의 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경에 구속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지만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시무 사면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김영구 목사가 광안련 목사와 함께 동사무사로 시무하게 된다. 이처럼 광안련 목사는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목회의 리더십을 물려줄 준비를 계속하였다. 1924년 6월 광안련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김영구 목사가 명실상부한 한국인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하게 되었다.

73)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151.

## 제 3 절 중흥기(1920~1928)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46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였다면, 승동교회의 중흥기의 토대를 마련한 분은 41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영구 목사이다. 승동교회가 전도 사업에 가장 열중했던 시절은 김영구 목사가 부임하여 전도 사업에 착수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 4년 동안은 전도와 집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기미년 3.1운동이 좌절되자 일제는 많은 기독교인을 체포하였으며 몇몇 교회당을 파괴하였다. 3월 18일 일본 검사가 직접 전두지휘하여 승동교회당과 정동교회당을 수색하였다. 양 교회가 3.1운동의 진원지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인사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망명의 길을 택하였다. 교회는 한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허탈 속에 있었으나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1919년 9월 8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전국 노회마다 진흥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마다 연합부흥사경회, 노회마다 회기를 이용하여 대부흥회를 갖곤 하였다. 그 기간은 보통 1주일 또는 10일간으로 아침 경건 시간과 찬양을 하고 3시간 정도 오전 성경공부를 하고, 오후 전도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 전도 집회를 하는 형식이였다.<sup>74)</sup> 경기노회의 경우 그 개최지는 서울이었고, 승동교회는 부흥회 또는 사경회를 개최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3.1운동의 진원지였던 승동교회는 교회 부흥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3.1운동 이후 상처받은 교우들의 상한 심령을 싸매기 위해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김익두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김익두 목사는 매년 한 번씩 서울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함으로써 서울에 사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감화를 끼쳤다. 김익두 목사의 활동으로 각 교회는 자체적으로도 부흥운동과 전도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sup>75)</sup> 승동교회에서는 1924년 10월 20일에서 25일까지 추계 대전도회를 개최하였다. 1925년 2월 10일에서 17일까지 경기 여자 도사경회를 시작으로 사경회의 문을 열었다.

74)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1, 859.

75) 이덕주, 새로 쓴 개종 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424, 425.

약 200명의 여자 회원들이 6개 반으로 나뉘어 성경공부를 하였다. 1925년 6월 22일 경성 장로교회 도당회가 승동교회에 모여 매 주일 오후 4시에 시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전도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교역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했으며, 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하기도 하였다. 김영구 목사는 도사경회를 비롯한 이런 모든 전도 운동을 추진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는 복음 전도 사업을 두고는 가능한 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승동교회는 34명의 새로운 신자를 얻었다.<sup>76)</sup>

김영구 목사는 조사로 사역할 때부터 그의 사역은 매우 다양하였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이었다. 그중 하나가 청년면려회원들의 활동이었다. 장로교 총회 안에 면려청년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미 조선예수교 청년 연합회(YMCA)가 조직되어 각 교파의 지교회 청년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YMCA 회관이 승동교회 바로 앞에 있으므로 YMCA와 승동교회 청년들과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승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다수의 청년이 개인 자격으로 YMCA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로교회 안에서 별도의 새로운 청년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면려청년회 운동이다. 19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기독교면려청년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921년 가을에 모인 제10회 장로회 총회에서 면려청년회를 전국 교회마다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23년 약 200여 교회에서 기독교면려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 운동에 발맞추어 김영구 목사의 지도로 승동교회 청년들은 3.1 운동 이후 침체에 빠졌던 남녀 청년회를 하나로 묶어 승동면려청년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22년 5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통령(統令)으로 김원벽을 선출하였다.<sup>77)</sup>

1925년 여름 서울에 큰 장마로 인하여 역사상 보기 드문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한강 연안에 있는 모든 마을이 침수를 당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수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노회와 총회별로 수재민 돕기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영구 목사는 당회를 소집하여 구제헌금을 하기로 하고 연보를 거두 일금 50원과 백미 한 가마를 수재민에게 전달하였다. 당회의 결의에 앞서 승동교회 부인전도회에서는 여자 옷 120가지를 거두어 수재민에게 보내며 전도하였다. 승동교회에 부인전도회가 창립된 것은 1920

76)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06.

77)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03.

년경 김점실, 테홍은 두 사람을 여전도사로 세운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휘장을 치고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릴 때이다. 남녀평등운동은 잠정적으로 예배드릴 때 가운데 가리고 있던 휘장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구 목사 재임 시절 남녀를 구분하던 휘장이 제거되었고, 부인전도회는 더 활성화되어 교회 안팎의 봉사와 구제, 전도에 최선을 다하였다.<sup>78)</sup>

김영구 목사는 41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한국인 담임목사로 승동교회가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친 최초의 목사이기도 하다.<sup>79)</sup>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교우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었다. 초교파적인 연합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수제민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 교우들에게는 명설교가로 바른 신앙을 지도하는 목자로, 청년들에게는 성경적인 바른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로, 교역자들에게는 덕이 있는 담임 목사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동교회를 중흥기의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 제 4 절 일제 박해기(1928~1945)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1930년대에 접어들자 한국 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첫째는 이용도와 여러 이단의 신비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둘째는 감리교의 정경옥과 장로교의 김계준, 송창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사상 운동으로 인하여, 셋째는 일제의 만주 침략과 더불어 시작한 신사참배 강요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김영구 목사의 소천으로 담임 목사가 된 박용희 목사는 1927년 조직된 신간회 안성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민족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사상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신흥우의 '적극신앙단'에 가입하여 초교파적인 활동을 하였다. 신흥우는 민족주의자로서 선교사들의 신앙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동시에 축자영감설과 보수신학만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데 반발하여 토착적인 한국 교회 수립을 표방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노회가 나뉘었고, 총회에까지 비화하였다. 총회는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박용희 목

78)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04, 207.

79) 김수진, *초기 한국교회 100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46.



사는 면직에 처하고, 1년간 직무 정지를 당하였다. 그런 중에 '익명서 사건'이 터졌다. 박용희 목사가 관여하던 기독교 출판사인 '창문사'에 부정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35년 5월 6일 박용희 목사는 사임하고, 목사를 지지하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익명서 사건'은 승동교회 자체의 문제이지만 박용희 목사의 '적극 신앙단' 가입문제와 아울러 노회의 분립과 이탈 등 복잡한 문제와 얽히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겪게 될 분열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박용희 목사의 '적극신앙단'과 '익명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승동교회 제9대 담임목사로 당대 최고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를 청빙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길선주 목사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잘 알려진 그는 젊어서는 소문난 싸움꾼이었다. 그러나 1900년 2월 안악교회에서 스왈론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는 2년 동안 순 한문 신약성경을 100독할 만큼 말씀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sup>81)</sup> 그가 사역하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였다. 김인서 장로는 김익두 목사 전기 가운데서 "그는 가슴을 칼로 찢는 것과 같은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였으며, 동시에 그만이 알 수 있는 신비적 경험도 여러 번 가진 바 있다"고 적고 있다.<sup>82)</sup> 1910년 평양신학교를 제3회로 졸업한 그는 부흥사로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그의 집회 수는 778회나 되었으며, 설교회수가 2만8천 회, 교회를 신축한 곳이 150곳, 병을 고친 횟수는 약 1만여 회, 그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근 200명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자유신학의 대표인 김재준 목사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있다.<sup>83)</sup>

김익두 목사는 한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부흥 운동가요, 명설교가였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영생이다. 그는 복음적이면서도 경건한 보수신앙의 소유자로 당시 한국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설파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의 설교는 곧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증언이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심령을 몇 시간씩 사로

80) 이덕주, *한국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07), 244, 246.

81) 이덕주, *새로 쓴 개종 이야기*, 422.

82) 김인서 "김익두 목사소전," *김인서신앙전집* 제5권, 95; 재인용,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20.

83)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222925.html>

잡았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듣는 이들의 심령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원을 갈구하고 참회의 고백을 하게 하였다. 한 마디로 그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설교였다.<sup>84)</sup>

김익두 목사는 승동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전임 목사 재임 기간 불화로 인하여 교인들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는 일에 전력하였다. 부임한 지 약 한 달 후에 구역을 주거 지역으로 해서 7 지역으로 나누어 재정비하였다. 책벌 받은 성도들을 해벌하였으며, 분리해 나간 교우들을 찾아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다. 부득이하게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우들은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였다. 1937년 3월에는 승동유치원을 개원하여 어린이 교육과 전도에 힘을 쏟았다. 1937년 5월에서 9월 중단되었던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38년 접어들자 일제는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하였다.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주기철, 채정민, 이기선 목사를 예비 검속하고, 김익두 목사를 종로 경찰서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일경에 의해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은 김 목사는 은퇴 후 고향 황해도 신천으로 가서 지내야만 했다. 1920년대 한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능력의 사자 김익두 목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또 교인들에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한 채 일경의 강요로 승동교회를 떠나게 되었다.<sup>85)</sup>

승동교회 당회는 1938년 8월 21일 이재형 목사 댁에서 모여 후임 목사 문제를 논의한 결과 9월 20일 용산교회를 시무하고 있던 오건영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여 그해 12월 취임하였다. 오건영 목사가 부임한 것은 1938년 12월이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지 불과 3개월 지난 때여서 일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제 당국은 교회의 특별집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이 같은 일제의 강압 속에서 일제의 감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맹인 전도였다. 맹인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은 일제 당국으로서 별로 감시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못되었다. 그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오 목사는 맹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업을 벌였다.

오건영 목사는 이덕홍 전도사를 승동교회의 위임 동사 목사로 청원하였다. 그리

84)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22.

85)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23, 224.

하여 1941년 6월 이덕홍 전도사는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1942년 승동교회는 또 다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른바 ‘유언비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회장 오건영 목사가 일본 헌병대에 검속되었다. 1942년 여름 여운형이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친구인 이재형 목사와 오건영 목사를 만나 대화하던 중 1942년 4월 18일 미국 비행기가 최초로 동경을 폭격한 일을 두고 머지않아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오건영 목사는 사모에 말하였고, 지나치다 그의 아들이 듣고 교회 찬양대 친구들에게 옮기다 보니 이 이야기가 널리 유포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일본 헌병대에 알려지게 되고, 헌병대는 이재형 목사와 오건영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청년을 모조리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이 사건으로 오건영 목사는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2년을 인도받고 1943년 5월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은거생활을 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sup>86)</sup>

1942년 11월 복역 중이던 오건영 목사는 승동교회를 사임하고, 이어 이덕홍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덕홍 목사는 부임하면서 맹인 전도와 구제 사업을 이어받았다. 유치원 사역에도 주력하였다. 당시 대화관 안에 설립되었던 유치원은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치원이었는데, 승동교회가 이 유치원을 인수하여 사역하며 어린이 교육과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 1930년 5월 첫 주일에 조직된 맹인회는 한 해가 지나 약 40여 명이 되었다. 그중에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맹인은 20여 명이었다. 승동교회 안에 설립된 ‘맹인회’는 서울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당회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 권찰을 따로 세우기도 하였다. 이 사역에 이덕홍 목사는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일제 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그는 서울에서 ‘맹인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였다.<sup>87)</sup> 맹인 전도 사업이 확장되면서 1948년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였다. 이미 1946년 대한기독교 라이트 하우스를 설립하고 관장으로 사역하던 이 목사는 1948년 국립맹아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맹인교육과 복지, 전도를 위해 헌신하였다.<sup>88)</sup>

자유주의 신앙사상을 가진 박용희 목사의 적극 신앙단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당대의 최고 부흥사 김익두 목사가 승동교회에 부임하여 하

86)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34.

87) <http://www.bl.sc.kr/bl/subIndex/27>

88)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36-239.

나님의 말씀으로 교우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회개와 영생의 메시지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앙을 북돋워 주었다. 구역을 재정비하여 전도하고, 어린이 교육과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가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함으로 김익두 목사는 강제 사임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환란 중에도 오건영 목사와 이덕홍 목사가 맹인 전도 사업과 유치원 어린이 교육과 전도에 힘쓰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 제 5 절 전환기(1945~1968)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일제의 한국 교회의 박해는 극에 달하였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기쁨도 잠시 잠깐 삼팔선이 그어지고,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휴전하면서 남북한의 분단은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라의 해방과 독립은 기독교신자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고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한에 있는 교회에만 적용되었다. 북한의 교회는 공산정권 하에서 일제 치하보다 더 큰 환란을 겪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1년 1.4후퇴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약 1천만 명이 월남하였다. 그중 많은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다.

1943년 5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5년 6개월의 당회록이 없으므로 일제 말기부터 해방 후의 혼란기를 겪는 동안 승동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 길이 없다.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항을 보면 교인들의 교적부를 다시 작성한 일과 강제로 징발되었던 중탑을 다시 세우는 일과 두 분의 협동장로를 세운 일 등이다. 1950년 2월 12일 홍대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그 당시 승동교회의 교세는 장년부 370명, 중등부 75명, 유년부 369명이였다.<sup>89)</sup> 홍대위 목사가 담임한 지 4개월 만에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대구에 내려가 그곳에서 대구고등성경학교 교장과 대구장로회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1951년 1.4후퇴로 다시금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우들은 제각기 피난

89)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50.

을 갖지만 그중에 부산으로 피난 가서 모인 승동교회 교우들은 약 40명 정도였다. 한 수산 집사가 중심이 되어 부산 동광교회의 은린 유치원을 빌려 예배처소로 삼았다. 김치선 목사를 모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은 재부 승동교회라고 하였다. 1953년 여름 휴전이 됨에 따라 그해 가을에 문을 닫게 되었다.<sup>90)</sup>

이러한 환란과 혼란을 겪던 전환기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한 분이 바로 이대영 목사이다. 일제 강점기 중국 산둥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대영 목사는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진 분이었다. 그는 20세에 부혜리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교 가문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191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간 전 과정을 마치고 1921년 졸업하였다. 1922년 중국 산둥 지방에 총회 전도부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6.25 이후 1954년 5월 승동교회의 임시 목사로 부임하고, 이듬해 6월 담임목사로 위임되었다.<sup>91)</sup>

이대영 목사가 부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다룬 것은 교회를 섬길 재직을 보장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써 승동교회의 당회와 재직회는 그 틀이 견실하게 짜이기 시작하였다. 수복 이후 어려웠던 교회 재정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해방 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맹인전도회를 재발족하고, 전담 전도사도 임명하였다. 교회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957년 교육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찬양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여 봉헌하였다.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1958년 교회당 증축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3차에 걸쳐 헌금하여 완공하였다.<sup>92)</sup>

1960년대는 교단 분열로 인해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겪으며 고통과 고난을 헤쳐 온 시기였다. 아픔과 비극 속에서도 승동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모교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다. 중국 화북신학교 교장 가옥명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능력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적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말로 설교를 하였다. 당시 승동교회는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새벽기도는 물론 밤마다 새벽기도회와 같이 매일 예배를 드렸다. 수요 예배를

90) <http://jangro.treem.kr/Jmissions/detail.htm?aid>

91) 김수진, *총회를 섬겨온 일꾼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76, 177.

92)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61, 262.

마치면 계속해서 새벽 5시 새벽예배 시간까지 철야기도회를 했다. 당시 승동교회는 실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였다.<sup>93)</sup>

이대영 목사의 재임 시절 승동교회가 추진한 전도 사업은 부인전도회가 주축이 되어 서울 변두리에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전도사를 파송한 일과 황성수 집사를 중심으로 하는 청장년 면려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연촌리 현제 성북역 뒤편에 김수은 여전도사를 파송하여 연촌교회를 개척하여 전도하게 하였다. 그해 10월에는 김용환 전도사를 정식으로 파송하였다. 김인득 집사의 부인 윤현의 집사는 대방동과 신길동 사이에 있는 약 40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대길교회를 세우도록 지원하였다.<sup>94)</sup> 또한, 여전도회는 1954년 인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품으로 의류와 우유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다.

1966년 2월 6일 총회에서 대만에 채은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헌금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개척교회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승동교회를 출석하다가 피어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미개척지에서 전도사역을 하던 이문숙 전도사를 지원한 일이다. 이 전도사는 1952년 경기도 양평군 국수리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1955년에 장지동 교회를, 1957년 교향인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에 교회를 세웠다. 그때 승동교회 여전도회원들이 가서 설립예배에 참여하였으며, 이대영 목사는 설립예배를 인도하였다. 이 교회를 위하여 승동교회 여전도회는 대지 200평을 매입하고 건평 30평의 예배당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왔다. 이 전도사는 1957년 12월부터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백석교회를 개척하여 전도하다가 1966년 4월 25일 예배당을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렸다. 예배당은 400평의 대지 위에 건평 19평의 건물로 한광교 집사와 여전도회의 지원으로 지어졌다.<sup>95)</sup>

승동교회 면려회는 일찍이 1905년 청년면려회가 조직되면서 존립하다가 1920년대 김영구 목사가 목회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그리고 6.25전쟁을 겪는 동안 부진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승동교회

93) 김병혁, *한국교회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47.

94) [http://www.daegil.net/church/info\\_history.html](http://www.daegil.net/church/info_history.html)

95)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78.

청년면려회가 다시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4년 11월 14일 대학생면려회가 창립되어 헌신예배를 드리면서부터였다. 월간 회지로 '가시관'을 발행하여 교회마다 배포하였다. 그리고 1956년 7월에 41세 이상 남자 교우를 중심으로 장년 면려회를 조직하였다. 1953년 4월 23일 대구서문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전국 총회에서 황성수 집사가 면려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54년 4월 22일 경북 안동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총회에서도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황성수 집사는 '기독교학생 신앙동지회'를 만들어 매 주일 오후 2시에 승동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열었다. 1957년 12월 29일에는 면려회가 회원 자격을 만 28세부터 45세까지의 남녀 교우들로 확대함으로써 교회 내의 여러 그룹과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승동교회도 청년 면려회를 확대하여 조직을 제편하고 임원을 선임하였다. 회장에 황성수, 부회장에 김인득, 최순영, 총무에 김상익, 서기에, 양기준, 홍재진, 회계에 김진형, 구금용이 선출되었다.<sup>96)</sup>

장로교회가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됨에 따라 주춤하였던 면려회 활동은 1960년 합동 측과 고신 측이 합동하면서 면려청년회로 새로이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기독교 면려청년회 합동 전국대회가 승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여경구 집사가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이경섭 집사가 회계로, 김진형 집사가 섭외부장으로 피선되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승동교회가 기독교면려청년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교회 자체로도 명실 공히 면려청년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승동교회 김복출 부목사가 청년면려회가 모은 백미 약 15가마와 현금 3만5천 4백원, 그리고 의류 387점을 가지고 경상북도 안동 지방을 순행하며 분배하고 전도하였다.<sup>97)</sup>

환란과 혼란의 전환기에 승동교회를 담임한 이대영 목사는 6.25 직후에 부임하여 1968년 11월 2일 소천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였다. 장로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질 때도 승동교회를 지켜내고, 이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의 총회장으로 교단을 이끌었다. 80세의 고령에도 쉬지 않는 기도와 강한 신앙으로 교회 내외로 일어나는 환란을 극복하고 보수신앙을 지켜왔다.<sup>98)</sup> 그의 제임 시절에 청년 면려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96)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64, 265.

97)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76.

98) 김수진, *총회를 섬겨온 일꾼들*, 177.

봉사하였다. 당회와 전도회 및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어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였다.

## 제 6 절 성장기(1969~1990)의 전도사역과 그 평가

이대영 목사의 소천으로 부목사인 박일웅 목사가 1969년 6월 담임목사가 되었다. 당시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의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부르짖으며,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50년대 일어난 종파운동들이 기승을 부리며,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교회로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동교회는 보수적인 합동 교단의 중심 교회로서 장로교의 정통 신앙과 신학을 견지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교회상을 추구하며 정립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계획하고 추진하는 민족 복음화 운동에 합동측 교단은 100만 신도 운동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sup>99)</sup> 승동교회는 합동측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전도에 힘써야만 할 위치에 있었다. 그리하여 박일웅 목사는 1971년에 교회 목표를 ‘교인 배가’에 두고 전도에 박차를 가하였다.<sup>100)</sup>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한다. 불신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다. 제직 가족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은 당회원들이 분담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를 한다.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한다. 잃은 교인 찾기 운동을 한다. 전도지 5만장을 인쇄하여 전도한다.

이렇게 시작한 배가운동의 결과 그해 1,2월 사이에 62세대가 새로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전도 운동은 계속 활발하게 이어졌다. 각 부서는 교인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인 파악과 정착, 그리고 전도를 목적으로 대심방을 시행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99) 2011년 8월 22일 자 기독교신문. 1964년부터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주일학교 사업을 통한 100만 신도운동 10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00)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84, 285.



일에는 신입교인 환영회를 열고 성경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신입교인의 정착과 신앙 성장을 위하여 교역자, 구역장, 권찰로 구성하는 세 개의 심방대를 편성하고 구역도 더 세분화하여 재편성하였다. 교인 가족 중 복음화 되지 못한 가정과 불신자를 위한 전도를 당회원들이 분담하고 기도와 심방을 강화하였다.

전도회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매월 2회 개인 전도를 하였다. 매년 2회씩 전도회 강습회를 개최하고 강습회가 끝나면 정기적으로 전도주일을 정하여 전도하였다. 전 교인들이 전도에 힘쓰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전도를 많이 한 교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교회 전도부와 여전도회 주관으로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초청하여 개인전도 방법을 배우며, 교사 세미나를 열어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사의 신앙과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주일 예배 출석교인의 증가를 위하여 새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권사와 각 구역장으로 하여금 예배 안내하고 출석 상황도 파악하도록 하였다. 김수은, 박영호 등 이미 은퇴한 교역자들까지 동원하여 시무 교역자들을 보좌하여 전도와 심방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 년에 두 번 거행되는 성례를 통하여 많은 새신자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온 교회가 힘써 전도한 결과 1972년 주일 낮 장년 출석이 600명을 넘어 서고, 1981년 4월 5일 주일 통계에 의하면 장년 주일 출석이 1,2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보건대, 그동안 시행한 배가 운동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강남에 세워진 대형교회들의 급성장에 비하여 승동교회의 성장은 완만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된 요인은 강남은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데 반하여, 승동교회가 위치하고 서울 도심은 주민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신도시의 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교인이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던 승동교회는 교회 대지를 확보하고, 승동 동산을 조성하며, 예배당을 증개축 수리하고, 기도원 건립의 기초를 놓게 된다. 1960년 연동 측이 제기하여 8년이나 끌어 온 교회재산 소송문제는 1968년 11월 26일 대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 대지 736평은 여전히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소속이었으므로 승소판결 후에도 명의 이전 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었다. 박일웅 목사

는 콕안런 목사의 아들 콕안전 목사를 만나서 승동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지를 선교부가 승동교회에 기증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미국 선교부는 과거 콕안런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비록 교단은 달리하지만 이를 쾌히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5월 승동교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sup>101)</sup>

김인득 장로가 기도원 부지로 경기도 가평 경반리 임야 10만 평을 교회에 헌납함으로 기도원 건립의 기초를 놓았다. 우사를 대폭 수리 개조하여 1991년 4월 가평 기도원 개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침내 교우들의 신앙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에서 예배를 처음 드린 것으로 잘 알려진 김인득 장로는 1973년에 총신대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sup>102)</sup> 1984년에는 극동방송국에 작고한 그의 부인 윤현의 권사를 기리는 의미로 '현의 기념관'을 준공하여 헌납하였으며, 1986년엔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당도 지어 헌납하였다.<sup>103)</sup>

승동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1972년 11월 서울 도봉동에 있는 제57육군후송병원 교회, 1973년 8월 제8사단교회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1980년 경기도 가평 개봉리 개척교회에 대지 5천 평을 매입하여 헌납하였으며, 11월 충북 괴산군 옥현리 옥현교회 헌당예배를 드렸다. 1881년 단촌교회, 대전 충지교회 등 개척교회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1982년 8월 충남 논산 송산리에 송산교회를 설립하였다. 1987년 연무대교회 등 군복음화를 지원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선교의 목적으로 종로1,2가동 관내의 노인을 모시고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베풀고,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자매결연하여 질서 캠페인을 겸한 전도 활동을 하였다. 안양 교도소의 재소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기탁, 수제민 구호금품 전달 등 사회봉사와 불우 이웃 돕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외에도 소록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미자립 교회와 군부대, 방송국, 병원, 경찰서, 총회신학교와 해외 자매결연교회 등 승동교회의 손길이 미친 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sup>104)</sup>

민족 복음화와 신도 100만 운동에 발맞추어 박일웅 목사가 '교인 배가' 전도 운

101) [http://kcm.kr/dic\\_view.php?nid=39482](http://kcm.kr/dic_view.php?nid=39482).

102) 김요나, *총신90년사* (서울: 양문, 1991), 460.

103)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94.

104)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295.

동을 한 것은 주효하였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과 같이 급성장하지 못했지만 서울 도심이 공동화(空洞化)되어감에도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박일웅 목사는 목회를 전도의 동력으로 움직였다. 설교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전도 훈련을 하였다. 구역을 재편하고 심방도 전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진행하고, 안내도 전도를 위해 안내위원을 배치하는 등, 전도 중심의 목회를 하였다. 전 교인이 전도에 전력한 결과 배가를 이루었고, 그 성장의 저력으로 개척 교회를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군부대, 교도소, 방송국, 병원, 경찰서, 경로당, 지하철역, 총회신학교와 해와 자매결연 교회 등, 승동교회의 손길이 미친 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 제 7 절 요약 및 결론

태동기에 승동교회는 설립자인 사무엘 무어 목사의 목회관에 따라 영혼구원과 교회개척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다른 여러 선교사가 학교사역이나 병원사역에 주력할 때에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행 전도를 하며, 교회와 예배처소 개척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백정 해방이란 엄청난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는 양반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약자인 천민과 어린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개화적 사회 분위기에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에도 합치되는 것이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다.

승동교회의 초기의 전도 사역은 박안련 목사의 순행 전도와 어린이를 위한 소학교 사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먼려운동으로 요약된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공헌”을 한 박안련 목사의 재임 시절,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서울에서는 승동교회를 통하여 이어나갔으며, 부흥 대집회나 사경회를 열 수 있는 서울 중앙의 대표적인 교회로 승동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승동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한국인 목회자들을 세워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이양하였다.

승동교회의 중흥기의 전도 사역은 41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한국 담임목사인 김영구 목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도사경회를 비롯한 모든 전도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앞장서고, 청년 먼려회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초교파적인 연합 사업에 힘쓰는 한편, 수재민을 구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부인 전도회를 창설하고, 남

녀평등사상으로 예배당 안에 휘장을 제거하였다.

일제 박해기에 승동교회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박용희 목사의 적극 신앙단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환란을 겪었으나 당대 최고 부흥사 김익두 목사가 부임하여 예수 십자가와 보혈, 회개와 영생의 메시지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역을 재정비하며, 어린이 교육에 힘쓰는 등 교회가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가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함으로 김익두 목사는 강제 사임당하는 등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지만, 곧 오건영 목사와 이택홍 목사가 맹인 전도 사업과 유치원 어린이 전도 사업을 하며 슬기롭게 환란을 헤쳐나갔다.

전환기의 승동교회는 이대영 목사가 6.25 직후에 부임하여 W.C.C 가입 문제로 교단이 갈라질 때도 승동교회를 지켜냈다. 그의 재임 시절에 청년 먼려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였다. 당회와 전도회 및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어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였다.

성장기에 승동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1만 교회 운동에 발맞추어 박일웅 목사가 ‘교인 배가’ 전도 운동을 하며 이끌었다. 그는 목회를 전도라는 동력으로 움직였으며,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정기적으로 전도 훈련을 하였다. 전도를 위하여 구역을 재편하고, 심방도 하며, 안내 위원도 배치하였다. 온 교회가 전도에 전력한 결과, 배가를 이루었고, 그 성장의 저력으로 개척 교회들을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며, 군부대, 교도소, 방송국, 병원, 경찰서, 경로당, 지하철역, 총회신학교와 해외 자매결연 교회 등 승동교회의 손길이 수많은 곳에 미치게 되었다.

## 제 4 장

## 승동교회의 설립 2세기 전도 사역 현황 및 분석

## 제 1 절 승동교회의 제2세기 선교와 전도 목회

승동교회가 태동기와 초기, 중흥기와 일제 박해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설립 1세기를 배가 성장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4대 담임 목사인 박일웅 목사의 ‘교인 배가 운동’이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 성장의 저력으로 승동교회는 장로교회의 모교회답게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군부대, 교도소, 방송국, 병원, 경찰서, 경로당, 지하철역, 총회신학교와 해외 자매결연 교회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설립 제2세기의 문을 열고, 승동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주도한 분이 바로 제15대 담임 목사인 박상훈 목사이다.

박상훈 목사는 1954년 경남 의령에서 부친 박영근 목사와 모친 허종숙 사모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서울 상대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삼성 물산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83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는 승동교회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여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아모스서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본래 계획은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었으나 신학 공부도 결국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기에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05)</sup>

1991년 박상훈 목사가 부임하고 2년 후에 승동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소홀히 하여온 해외선교에 역점을 두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았다. 아울러 민족 복

105) Online: <http://www.seungdong.or.kr/pastor/html/01-2.asp>, 2015년 7월 1일.

음화와 예배당 신축을 교회 목표로 정하였다. 1992년 1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듬해 1993년 교회 설립 100주년 행사는 지난 100년 동안 승동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나가야 할 지 돌아보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교회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대순으로 사진을 잘 정리하여 전시하였다.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와 광안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에게 선교의 빛을 진 교회였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한 교회로서 이제는 그 빛을 좇아야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해온 강승삼, 노봉린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sup>106)</sup>

우선 협력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에 원주민용 신약성경 1만 권을 기증하였다. 아르헨티나 브리가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증축을 위해 한수산 장로가 15,000달러를 지원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인도 차코 토마스 목사가 목회하는 에벤 에셀 승동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경비는 김진형 장로가 전적으로 지원하였다. 1999년 10월에는 아르헨티나에 두 번째 평화의 문을 개척하고 2000년 3월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경일 집사 가정에서 3만 달러를 현금하여 건축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탄자니아의 이진섭 선교사, 터키의 이순주 선교사, 카자흐스탄의 김기호 선교사, 아르헨티나의 사무엘 스와지크와 호세 그리미 목사, 기니의 김진봉 선교사, 인도의 차코 토마스 목사, 러시아의 우종철 선교사, 오스트리아의 이상호 선교사, 수단의 강범진 선교사, 에리트리아의 안건상 선교사, 크로아티아의 박찬신 선교사, 케냐의 장익성 선교사, 중국의 왕도준 선교사(가명), 파키스탄의 차수열 선교사,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를 협력 지원하였다.<sup>107)</sup>

승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여 마침내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1992년 11월 본 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한 송균호 목사와 고소정 사모를 단독으로 일본에 파송한 것이다. 지구상에 가장 먼 곳인 아르헨티나에 현지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고,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승동교회는 이 두 곳을 기점으로 해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4년 6월에는 이철우 목사와 김문경 사모를 필리핀에 파송하여 신학교 교수 사역을 담당케 하였다. 1998년 5월에는 박문숙 전도사와 그 남편 김대기 집사를 키르기스스탄에 파송하였

106)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304.

107)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313.

다. 남편의 지병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박문숙 선교사 사역과 정영현 장로의 후원으로 2000년 6월 ‘키르키즈 제1 승동교회’가 완공되어 헌당예배를 드렸다. 박문숙 선교사는 복음 전파에 주력하며 개척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과 신학교 사역도 성공적으로 이루어갔다.<sup>108)</sup> 2002년 7월에는 최정자, 이행자, 현덕순 세 분의 권사들의 헌금으로 ‘키르키즈 제2 승동교회’가 완공되어 헌당예배를 드렸다. 2004년 9월에는 정만영 집사의 가정의 후원으로 ‘키르키즈 제3승동교회’가 건축되어 헌당예배를 드렸다.<sup>109)</sup>

설립 2세기 처음 10년 동안 승동교회는 이처럼 세계 선교에 주력하였다. 설립 2세기 둘째 10년에도 선교의 역사는 계속된다.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승동교회는 110주년을 맞이하였다. 11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더불어 설립 2세기 둘째 10년 동안 전심전력한 것이 바로 전도이다. 박상훈 목사가 부임하고 승동교회는 처음 10년은 해외 선교 사역에 주력하였다면 둘째 10년은 전도에 주력하게 되었다.

2003년 교회 표어를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사54:2)고 이름하고, 110주년 기념 사업 및 행사 표어를 “110주년 깊은 믿음, 넓은 사랑, 승동 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기념행사는 효도관광을 시작으로 다모임주일, 종각역 경로 전도, 홈커밍데이, 사무엘 무어 목사 추모 예배, 110주년 기념 예배와 음악회, 청년부와 각 주일학교 자체 행사, 어린이 사생회, 장기 출석 교인 기념패 수여, 사료 수집 및 전시 등 다채롭고도 뜻 깊게 진행되었다. 교회설립 1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2003년 6월 1일 ‘다모임주일’은 승동교회가 이후에 전도에 주력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108)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8>

109)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314-316.

## 제 2 절 전도 행사 중심의 전도 전략

### 1. 다모임 주일 전도<sup>110)</sup>

2003년 이전 ‘다모임 주일 행사’는 전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구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던 행사이다. 불신자 전도라기보다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이었다. 교구마다 다시 찾을 양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한 날을 정하여 초청하여 환영하고 교제하여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교구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이 조출한 행사가 2003년 교회설립 1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교회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2003년 6월 1일 주일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교우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예배시간에 당회장 박상훈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여전도회 회원들이 장미꽃을 증정하였다. 예배 후 하층 기도실에서 본 교회 여성으로 구성된 엘림찬양단이 찬양으로 그들을 영접하였고, 전도부 지도 정성환 목사의 사회로 전도부장 서건익 장로의 인사 말씀과 새가족부장 최철순 장로의 등록 권유에 이어 전 당회원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 시계를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일일이 증정하였다.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수가 100여 명이었다. 그중 새롭게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한 교우가 52명이나 되었고, 그중에 5명은 장기 결석자였다.

### 2. 전도 대상자 작정 전도<sup>111)</sup>

2003년 6월 1일 다모임주일의 작은 성공은 2005년 10월 30일 충동원전도주일의 불씨가 되었다. 2004년에 접어들면서 박상훈 목사는 전도를 목회의 초점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김학성 장로를 전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성환 목사를 전도부 지도 교역자로 세우고,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전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00명 총 400명을 전도 목표로 세웠다. 연 2회 전도 세미나를 시행하고,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김학성 장

110)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335.

111) 정성환, *승동교회 충동원 전도주일 백서*, 승동교회 자료철 (2005), 3-8.



로는 전도한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시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구체적인 전도 행사보다는 도약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

2005년 1월 한 달은 전교인특별새벽기도회로 시작하였다. 2005년을 “1+1” 새가족 전도의 해로 정하고 새가족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10월 30일 총동원전도 주일로 정하고 3,000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3,000명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2005년 3월 16일(수) 인사동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특공대가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전도특공대는 매주 40여 명이 모여 인사동을 중심으로 교회 주변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노방전도를 하였다.

노방전도는 처음에는 단순히 전도지나 전도 용품을 나누어주고, 교회 홍보용 책자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나 CD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우선 교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도특공대원들이 노방전도에 좀 익숙해지면서 전도 대상자 작정을 목표로 하기 시작하였다. 불신자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도 대상자로 작성하여 태신자로 품기로 한 것이다.

2005년 10월 30일, 총동원전도주일을 앞두고 승동교회의 전도 대상자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대상자를 작성해서 한 부는 교회로 제출하고, 한 부는 개인이 보관한다. 둘째, 제1차 전도 대상자 작성은 2005년 3월 27일(주일)에, 제2차 전도대상자 작성은 6월 5일(주일)에, 제3차 전도대상자 작성은 7월 31일(주일) 각각 1000명씩 1,2,3차 합계 3,000명 작성하도록 한다. 미리 작성서를 작성하여 주일 헌금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도록 한다. 셋째, 개인 보관용은 자신의 성경책 앞머리에 붙이고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넷째, 그를 나의 VIP로 생각하고, 그가 잘되도록 모든 일을 돕고 지원한다. 다섯째, 자주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준다. 여섯째, 교회의 주보나 승동 만나, 또는 설교 테이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일곱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한다. 여덟째, 교회로 인도되면 교역자를 통해 새가족부로 인도해서 교회에 최대한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한다. 아홉째, 모든 전도대상자가 추수감사주일 이전에는 열매를 맺히도록 목표를 세운다. 열째, 교회로 인도되고 난 뒤에도 내 가족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1차로 1,000명을 작성하기로 한 2005년 3월 27일(주일)에는 194명의 성도가

331명의 전도대상자를 작성하였다. 1,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6월 5일(주일)에는 283명의 성도가 2,115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였다. 7월 31일(주일) 제3차로 365명의 성도가 3,137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였다.

승동교회의 '전도 대상자 작성 전도'는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와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를 골자로 전도특공대 노방전도, 관계전도, 구역전도, 이슬비전도 등을 승동교회에 실제로 맞게 적용한 것이다. 박상훈 담임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다른 교회 전도 방법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그것을 승동교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2005년 4월 7일(목) 이상만 목사를 초청하여 '오이코스 전도훈련' One-Day 세미나를 가졌다. 전도를 위하여 새벽기도회, 삼일밤예배 시 전심으로 합심 기도를 하였다. 금요심야기도회에는 기도용사 70인을 모집하여 기도하였다. 교구별로도 따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다. 전도 대상자 작성서를 받으면 전도부에서 정리한 후 각 구역과 전도회로 보내어 기도하게 하였다.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성도는 개인 보관용을 성경 책 앞머리에 붙이고 매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다.

전도 대상자에게 매주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시리즈 12종류의 전도 편지와 매달 발행 되는 '승동 만나'와 10월 30일 총동원전도 주일 직전에 2종류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였다. 처음에는 매주 발송하다 천 통 이상 부수가 늘어감에 따라 격주로 보내게 되었다.

각 전도회는 주일 노방전도와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도록 하였다. 각 구역도 구역 예배를 마친 후 구역 주변을 돌면서 전도하도록 하였다. 각 주일학교도 자체적으로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도록 하였다. 온 교우와 각 전도회, 각 구역, 각 주일학교 등 모든 교우와 모든 기관이 전도에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였다.

### 3. 수요 전도특공대 전도<sup>112)</sup>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전도하였다. 주님의 몸 된 승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교회 주변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3월 23일(수) 대장 박상훈 목사를 중심으로 26명이 모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제1교구 전도특공대는 대일빌딩과 YMCA 주변 상가를, 제2교구 전도특공대는 태화빌딩과 인사동 길 주변 상가를, 제3교구 전도특공대는 낙원빌딩과 낙원동 길 주변 상가를, 제4교구 전도특공대는 교회 주변 인사동 길 주변 상가를 돌며 전도하였다. 이후에 전도 지역을 확대하여 북으로는 삼청동, 동으로는 종묘, 서로는 종로구청, 남으로는 을지로 주변을 두루 다니며 12월 7일(수)까지 총 38차의 노방전도를 하였다.

전도특공대의 전도는 3단계로 시행되었다. 제 1단계는 뿌리는 단계로 3,4,5월 3개월 동안 승동교회를 알리는 단계로 유동인구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상주인구에 안면을 트는 것을 중점으로 시행하였다. 제 2단계는 가꾸는 단계로 6,7,8월 3개월 동안 안면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 3단계는 거두는 단계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와 영접기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였다. 새봄 부활 주일을 전후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름 내내 가꾸고, 가을 추수감사주일 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물론 획일적으로 3단계에 맞추어 전도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되 전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3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수요일마다 전도특공대가 모이면 개인이 조용히 기도하다가 찬송을 몇 장 부르고 대장 박상훈 목사의 전도 메시지를 받고, 전도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전도 현장 간증을 하고,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교구별 전도대로 모여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나누어 가지고 지정한 장소에 나아가 전도하였다. 전도할 때에 불신자나 낙심자들을 만나면 전도 대상으로 걱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5년 전도특공대에 참여한 전도 대원들은 모두 75명이었다. 대장 박상훈 목사

112) 정성환, *승동교회 충동원 전도주일 백서*, 8-10.

를 비롯하여 제1교구 전도특공대에 정성환 목사, 이영옥 전도사, 김금순, 이명자, 장말순, 김선영, 이향란, 신경희, 김삼열, 박성자, 오금희, 이신자, 장창옥, 정영희, 이근희, 김옥자, 김선영, 장명자, 장천숙, 전해숙, 박금자, 김숙희, 정철화, 김광국, 제2교구 전도특공대는 백광현 목사, 유인숙 전도사, 이연용, 진영아, 최향란, 공순희, 우경순, 권남순, 김갑순, 김경아, 김미정, 김옥희, 안난순, 이광자, 이보원, 이진선, 이희순, 정인자, 조온희, 최순기, 하영미, 한명숙, 함재옥, 황명희, 정영모, 제3교구 전도특공대는 김병중 목사, 유인숙 전도사, 배효순, 홍경자, 박성연, 한영실, 장형선, 최덕순, 손병숙, 홍인교, 김단순, 김연자, 이현정, 도영미, 조옥필, 한현숙, 박영애, 함정숙, 신현주, 박상철, 성통열, 신현집, 김풍조, 권동원, 제4교구 전도특공대는 김석배 목사, 이영옥 전도사, 이정신, 김태현, 이재준 등 남자 대원이 14명, 여자 대원이 63명, 도합 77명이었다. 해병 특공대는 주로 남자이지만 전도 특공대원은 주로 여자인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특공대원들은 전심 전력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였다. 그 결과 내적으로는 복음 진리로 무장이 되고, 외적으로는 등록 교인의 수가 매 주일마다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큰 교회 내에 오래 있을 법한 사소한 잡음들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승동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 4. 10.30 총동원전도주일<sup>113)</sup>

2005년 7월 17일(주일) ‘총동원전도주일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0일(주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날로 3,000명 초청 ‘총동원전도주일’로 지키기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먼저 조직을 정비하였다. 대회장에 박상훈 담임 목사, 준비위원장에 김학성 장로, 실행위원장에 박상철 장로, 지도에 정성환 목사, 총무에 이정엽 집사, 서기에 박성백 목사, 회계에 유관종, 박기복 집사로 임원단을 조직하였다. 임원단을 중심으로 10개의 부서 곧 진행부(행사 기획 및 진행담당), 행사부(총동원전도주일 및 진행 담당), 장식부(장식 담당), 홍보부(홍보 담당), 찬양부(찬양 담당) 안내부(등록 및

113) 정성환, *승동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백서*, 19-28.

안내 담당), 환영부(환영 순서 담당), 영상부(영상 및 연극 담당), 지원부(설교 테이프, CD, 책자 담당), 전도용품부(전도 용품 제작 배포)를 두어 시차를 두고,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총동원전도주일 실행 위원회'가 조직되고 가동됨에 따라 '10.30 총동원전도주일'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5번 이상 만나 전도지나 승동 만나, 전도 용품들을 전달하고, 당일 교회에 나오도록 약속하기로 하였다. 8월 1-3일 제5회 전교인신앙수련회를 기점으로 '10.30 총동원전도주일'을 선포하였다. 교구별로 1,000명 초청, 700명 등록을 목표로 정하고, 전교회적으로는 3,000명 초청, 2,000명 등록을 목표로 정하고 선포하였다.

7월 31일(주일) 제3차로 365명의 성도가 3,137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최종 명단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초청 승낙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9월 4일(주일) 전도 진행팀이 가동하여 초청 승낙을 받도록 하였다. 전도 진행팀은 이정엽 집사가 팀장으로 장천숙, 이은호, 우정순, 최향란 집사가 수고하였다. 1차로 9월 25일(주일)까지 65명의 전도자가 667명의 초청 승낙을 받았다. 2차로 10월 16일(주일)까지 203명의 전도자가 2,640명의 초청 승낙을 받았다. 마지막 3차로 10월 23일(주일)까지 271명의 전도자가 3,480명의 초청 승낙을 받았다. 초청 승낙을 받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역자와 전도 진행팀이 초청 승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박상훈 담임 목사도 감사의 전화를 거는데 동참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전도 진행팀이 제작하여 배포한 전도지는 초청 기간에 6종류로 206,000장, 전도 전단지 3종류 12,000장, 전도 대상자 작성서 4회 12,000장, 초청장 4회 12,000장 모두 242,000장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였다. 매월 발행하는 '승동만나'도 각 호수당 1,200부씩 총 9,600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전도에 사용하게 하였다. 포스터와 플랜카드, 초청장, 각종 홍보물, 전단지 제작과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에서 성통렬 집사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이외에도 주보 공간을 활용하여 전도 홍보의 글을 싣고, 표어를 스티커로 만들어 식당과 화장실을 비롯하여 곳곳에 붙였다.

8월 21일(주일)부터 설교 CD& 테이프 팀이 가동되어 담임 목사의 설교 CD와 테이프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박의근 성도를 팀장으로 박상철 장로, 정만영,

윤경준, 홍인교, 홍인자 집사가 수고하였다. 이들은 회비를 자비로 건어 제작하여 배포하는 열심을 내었다. 매주 CD 100개, 테이프 1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0.30 총동원전도주일이 지나고도 매주 CD 80개 테이프 5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9월 4일(주일) 전도 용품 팀이 가동되어 전도에 필요한 용품을 염가로 제공하였다. 박상철 장로를 팀장으로 김월한 권사, 정승용, 김윤희, 오세철, 강현순 집사가 봉사하였다. 담임 목사의 저서를 10권의 '삶 시리즈' 소책자로 만들어 휴대하여 전도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성경책을 염가로 제공하고, 전도용 티슈, 위생 팩, 손거울, 2색 볼펜, 액자, 사탕, 탁상용 십자가, 걸이용 십자가, 저금통, 휴대전화 고리 등 다양하게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판매 수익이나 기증품 등을 받아 전도특공대가 전도하는 데에 많이 제공하였다.

전도회별로 매주 돌아가면서 하던 '인사동 노방전도'가 '인사동 거리 음료 전도팀'으로 거듭났다. 유관중 집사의 제의로 장영철, 박상철 장로가 지원하면서 조대순, 김월한 권사, 김길림, 김경숙, 강영순, 서보용, 이인숙, 장효순, 장형선, 최정숙, 정철화 집사와 심 철, 서혜경 성도, 조병민 형제, 채송이 자매가 봉사하였다. 9월 25일(주일)부터 11월 27일(주일)까지 열 차례에 걸쳐 봉사하였다. 커피기, 주스기, 천막, 십자가, 손수레, 의자, 테이블, 전선, 호수, 어깨띠 등 준비물을 장만하는데 무려 7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장영철 장로가 대부분 지원하고, 박상철 장로가 찬조하였다. 매 주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만 명 이상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다.

10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에 전력하였다. 준비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며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전도회별로 기도하게 하고, 교구별로도 릴레이 기도를 하였다. 9월 2일(주일) 준비위원회가 모여 준비하고 기도하였다. 9월 9일(주일)엔 전체 준비위원회가 모두 모여 준비하고 기도하였다. 9월 16일(주일)엔 1차로 전체 리허설을 하고 기도하였다. 9월 23일(주일)엔 2차로 전체 리허설을 하고 기도하였다. 10월 29일(토)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최종 점검에 들어가서 오후 늦게 최종 리허설을 하고 기도하였다.

총동원전도주일인 2005년 10월 30일(주일), 아침에는 좀 쌀쌀했으나 전형적으로 맑은 아주 좋은 가을 날씨였다. 준비위원들이 아침 일찍 모여 최종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였다. 선물로 준비한 엄청난 물량의 헤어드라이어를 특수

제작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초청을 받은 자와 전도자 모두에게 선물을 드렸다. 새가족이나 인도자, 전도위원회 위원은 물론 교인들 모두가 기쁨으로 넘쳐났다.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즐거움이 넘쳐 나는 천국 잔치가 되었다.

기존에 3부로 드리던 예배를 5부로 드렸다. 1부는 오전 8시, 2부는 오전 9시 30분, 3부는 오전 11시, 4부는 오후 1시, 5부는 오후 3시에 드렸다. 예배 시간에 드리던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도록 하였다. 여전도회 엘림찬양단과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시작 찬양을 하고, 정한 시간에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찬송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을 일어서서 부르고,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다. 대표기도는 1부 서건익 장로, 2부 한웅일 장로, 3부 최영수 장로, 4부 이해성 장로, 5부 허태수 장로가 하였다. 박상훈 담임 목사가 “복음”(롬1:16,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처음 오신 분들이 쉽게 설교를 이해하도록 소책자로 제작하여 보면서 듣게 하였다. 설교자가 기도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청년들로 구성된 성극단이 “십자가”를 공연하였다. 박상훈 담임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환영 위원들이 담임 목사의 저서인 소책자에 특별 제작한 책갈피를 넣어 환영하였다. 이어서 1,2,4부에는 엘림찬양단이, 3,5부에는 임마누엘 남성중창단이 특송하였다. 모두 일어서서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전도자 326명이 2,353명을 초청하여 총 3,7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 목표를 초과로 달성하였다. 11월 첫 주 62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였다. 그 후 매주 10여 명이상이 등록하였다. 새가족은 새가족부에서 정한 5주간의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훈련양육부에서 계속 양육을 받도록 권면하였다.

이외에도 진행부에 박기복, 행사부에 1교구 김광국, 유관종, 김숙희, 이신자, 2교구 김진관, 정성찬, 김옥희, 황명익, 3교구 유재식, 임헌방, 이현정, 김연자, 장식부에 이소형, 김해경, 찬양부에 심연선, 김민경, 강광순, 안내부에 유재식, 환영부에 박자형, 이희순, 영상부에 임병주, 홍기범, 이창현, 김희재, 최홍철 등이 수고하였다.

서서히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11월 27일(주일)에는 ‘인사동 거리 음료 전도팀’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기로 하였다. 그동안 충동원전도에 최전선에 섰던 ‘수요 전도 특공대’도 12월 7일(수)부로 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설교 테이프, CD 팀은 겨우 내내 활동하였다. 김학성 준비위원장의 주문대로 전도 왕을 뽑아 크게 시상하기로 하였

다. 전도 왕은 세 명을 1등으로 하였다. 연내 최대 등록자와 연내 최대 정착자, 10.30 당일 최대 초청자로 성지순례 비용 100퍼센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영예를 홍경자, 황명익 권사, 장천숙 집사가 차지하였다.

##### 5. 장년2부 전도(탐골공원 노인 전도)<sup>114)</sup>

승동교회의 연혁 1996년 1월 1일에 보면 “교육부를 3부로 나눈다. 교육1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2부: 대학부, 청년부. 교육3부: 장년1부, 장년2부.”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3부의 장년1부는 기존 교인들의 장년부이고, 장년2부는 탐골, 종묘 공원의 노인들을 모셔서 따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부서이다.<sup>115)</sup>

장년 2부의 시작은 탐골 공원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윤영한 집사를 비롯하여 장경운, 장영철, 윤한석, 김희용, 백영근 집사 등이 주축이 되어 탐골 공원에 노방전도를 나갔다. 거기서 그들은 노인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꾸준히 이곳을 찾아 서로 안면을 익히며 가까이 지냈다. 1994년 윤영한 집사가 제3남전도회 회장이 되면서 노방전도에 그치지 않고, 제3남 전도회원들을 설득하여 탐골공원에서 노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장년 2부의 태동은 제3남전도회의 전도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초의 예배는 탐골 공원 팔각정에서 드렸다.<sup>116)</sup>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하였다. 빵 100개와 우유 100개를 준비하여 갔는데 너무 많은 노인이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다음부터는 매달 한 번 300명분을 준비하여 전도하였다. 여름이 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노인은 400여 명이 되었다. 먼발치에서 지켜보면 간식을 받아가는 분들까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김수선 할아버지와 노인 여섯 분이 교회로 윤영한 집사를 찾아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114) 정성환, *승동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백서*, 31-45.

115) *승동교회 교인생활수첩* (2010년), 90.

116) 전정희,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 탐골 공원 노인에 사랑의 전도 열매,” *국민일보* (2001년 4월 3일), *국민일보* 종교면.



리하여 2부 예배에 뒷자리는 탑골 공원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면서 예배시간에 잡담도 하고, 소란도 피우며,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하여 아래층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년2부가 생겨난 것이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따로 모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의 성경교육과 예배 후의 식사 대접의 순서로 모임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매 주일 10시 10분에 교사회가 모이고, 10시 30분에 성경공부 교육, 10시 40분에 건강 체조, 10시 45분에 찬송하고 예배를 시작하여 11시 30분에 마치고, 광고하고 시상한 후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매달 한 번씩 무료 이미용 봉사도 섬기고, 일 년에 한두 번 효도관광으로 야유회를 하기도 하였다.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에는 꼭 필요한 특별 선물을 마련하여 드렸다. 병들어 입원한 어른들은 교역자와 교사가 직접 찾아가 위문하고, 간혹 상을 당하면 유가족을 위로하고 요청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장례까지도 치러 드렸다.

110주년을 맞이한 2003년 장년2부의 조직을 보면 교장에 박상훈 담임 목사, 부장에 윤한석 장로, 지도에 정성환 목사, 제1부장(새신자반)에 장영철, 김광국 집사, 제2부장(학습반)에 백영근, 윤병동 집사, 제3부장(세례반)에 김진관, 정종구 집사, 제4부장(성가대)에 유관중, 정만영 집사, 서기에 김종성 집사, 회계에 서보용 성도, 지휘에 강대연 집사, 반주에 김정미 집사, 교사로는 홍인자, 마희영, 장효순, 김건호, 김태성, 공순희, 박승신, 장상호, 민성기, 박상재, 김월한, 정 석, 박연길, 정송철, 장용구, 김병원 집사 등이 수고하였다.<sup>117)</sup>

탑골공원 노인 전도를 시작한 1993년 이래로 10년이 된 2003년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연인원은 1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가운데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150명에 달한다. 장년2부가 교회 내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명예집사 직분을 받은 30여 명의 노인이 ‘갈렙회’로 모이게 되었다. ‘갈렙회’를 중심으로 봄가을 효도관광으로 야외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2005년 10월 30일 총동원전도주일에 장년2부도 크게 기여하였다. 평균 200명 참석하던 장년2부가 당일에는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장년2부 가운데 교사와 회원

117) *승동교회 장년2부 후보*, 2003년 5월 11일 자.

32명이 375명을 초청하였다. 2011년 ‘갈렙회’는 제5교구 ‘갈렙 구역’으로 거듭나 109세대로 성장하여 김영성 집사가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다.<sup>118)</sup>

#### 6. 지하철 종각역 전도<sup>119)</sup>

1986년 ‘서울지하철 기독교선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승동교회는 1호선 종각역과 자매결연하였다. 자매결연 이후 종각역을 중심으로 질서 캠페인을 겸한 전도 활동을 해왔다. 매년 종각역의 사랑의 편지함과 사랑의 편지 액자를 설치하는 데 지원하였고, 12월 성탄절을 즈음하여 종각역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였다.

2003년 1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어버이날을 앞둔 5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남녀전도회원들과 장년2부 교사들 10여 명이 정성환 목사와 함께 전도 활동을 벌였다. 역무원들에게는 떡과 우유를 나누어주며 위로하였고, 개찰구 주변에서 전도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예쁜 손수건을 선물하며 전도하였다.

2005년 총동원전도 기간 종각역은 1교구가 맡아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다. 종각역 출입구를 앞에서 행인들에게는 전도지와 교회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지하철 상가 각 매장을 돌며 전도대상자를 작성하며 전도하였다.

#### 7. 해외 파송 선교사의 사역과 교회 개척을 통한 전도

설립 2세기 둘째 10년(2003~2012년)은 110주년 기념행사를 하던 역량을 모아 전도에 최선을 다하였다. 2005년 10월 30일 총동원전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2006년 10월 29일 총동원전도도 새가족 3,310명을 초청하고, 5,126명이 예배에 참석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한웅일 장로는 예배당 내부가 목조인 당시 본당이 혹시 내려앉지는 않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설립 2세기 첫째 10년에 전심전력하였던 선교는 둘째 10년에도 선교사 3가정을 더 파송하며, 해외 개척 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118) 승동교회 교인생활수첩 (2010년), 176-179.

119)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334.

2004년 3월에는 김궁현, 박은주 선교사를 미국으로, 2006년 1월 22일에는 김계웅, 오금희 선교사를 인도로, 2008년 1월 27일에는 박성준, 김선영 선교사를 아르헨티나로 파송하였다. 원래는 자비량으로 San Francisco Bay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선교를 꿈꾸었던 김궁현, 박은주 선교사는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를 통한 열방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김선영사 부부는 2006년부터 ‘캐년크릭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다. 교회의 조직은 실행위원회, 선교위원회, 셀가족, 마을 조직을 기초로 하는 ‘가정교회’로 제자훈련과 선교 훈련에 주력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교회 개척 5년 만에 500여 명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터키와 J국에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고, 매년 여러 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sup>120)</sup>

2006년 1월, 김계웅, 오금희 선교사 부부가 인도 콜카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세 선교사가정이 West Bengal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인 팀 사역에 성공하였다. 2011년 4월, 만 6년 만에 교회 건축을 완공하는 등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언어 능력과 영성이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잘 아는 김 선교사 부부는 선교지에 도착하여 만 1년 만에 자다폴 대학에서 벵갈어를 수료하였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김 선교사는 바로 동료 선교사들에게 벵갈어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송동교회를 섬길 때 훈련양육부에서 교제로 사용하던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과 신앙생활’편을 벵갈어로 번역하여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도록 돕고 있다.<sup>121)</sup>

2008년 10월 김계웅, 오금희 선교사는 최현주, 이종무 선교사와 함께 콜카타에서 NGO 법인인 ‘Lifeline-in-Bengal Welfare Trust’를 설립하였다. 이 NGO 법인은 West Bengal에 흩어져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박디 종족을 복음화 하는 것과 거대도시 콜카타를 복음화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김계웅 오금희 선교사는 남쪽 벵갈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이종무, 이현숙 선교사는 북쪽 후글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변 마을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특히 최현주, 박혜정 선교사는 콜카타시를 중심으로 예배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두 선교사 부부가 훈련시킨 시골 학생들이 도시에 와서 공부할 때에 이들을 기숙 사역을 통하여 돕는

120) <http://maranathavc.org>

121) 김계웅, *기도편지*, 2011년 5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009년 2월 람랑가로 사역지를 확정한 김계웅, 오금희 선교사는 현재 200여 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다.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훈련시키고, 6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기도와 찬양을 시작한 다음 각 교과목을 과외 공부를 시키고 있다. 주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미 2006년 학교 교회 부지 865평을 매입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 부지 1,200평을 매입하였다. 2010년 4월 1층 방과후 학교 8개 교실, 2층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2011년 4월 건축을 완공하였다.

박성준, 김선영 선교사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하여 그곳에서 중, 고, 대학 교육을 받고, 결혼 후 귀국하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GMS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8년 1월 아르헨티나로 파송되었다. 이민 1.5세로 이미 문화와 언어에 적응된 박 선교사는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현지 교회를 소망하며, ‘벤엘성경학교’를 세워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온전한 성경 교육을 힘쓰고 있다. 현지 교회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이고, 목회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체험이나 꿈 등을 좇으며 극단적인 오순절주의로 흐를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두 곳, 지방 뚜꾸만과 바로체에 두 곳, 모두 네 곳에서 강의하고 있다. 과목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나라, 교리, 사도행전,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인 포르도바와 로사리오에 벤엘성경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벤엘성경학교 센터를 세워 현지인과 함께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다.<sup>122)</sup>

1909년 서울에 ‘안동교회’, 1957년 경기도 양주에 ‘백석교회’, 1980년 충북 괴산에 ‘옥현교회’, 충남 논산에 ‘송산교회’는 승동교회 설립 1세기에 개척 설립한 국내 교회들이다. 한편 1993년 아르헨티나의 브리가도에 ‘선한사마리아인의교회’, 1996년 인도의 ‘에벤에셀승동교회’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키르키즈 승동교회’, 아르헨티나의 ‘평화의 문 교회’, 2002년 키르기스스탄에 ‘키르키즈 제2승동교회’, 2005년 인도에

122) 박성준, *선교편지*, 2011년 3월 5일

‘우스티장로교회’, 2006년 아르헨티나에 ‘자누라교회’, 2007년 칠레에 ‘딸까 그리스도 제자교회’, 태국에 ‘승동 제1사랑의 교회’ 등은 설립 2세기에 승동교회가 해외에 교회당을 지어 헌당한 해외 교회들이다. 가까이로는 태국, 인도에서 멀리로는 지구 반대쪽인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모두 9개의 예배당을 지어 헌당하였다.

### 제 3 절 요약 및 결론

승동교회 설립 2세기 처음 10년 동안은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해외 선교에 주력하였다. 사무엘 무어와 광안련 선교사를 비롯하여 선교사들의 빛을 진 교회인 승동교회가 그 선교의 빛을 갹아가기 위해 가까이 일본에 송균호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멀리 지구 반대쪽 아르헨티나 브리가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를 지어 헌당하고 여러 선교사와 협력 선교를 하였다.

승동교회 설립 2세기 둘째 10년 동안에는 해외 선교를 계속하는 동시에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에 주력하였다. 교회 설립 1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시행한 2003년 6월 1일 ‘다모임주일’의 작은 성공은 전도 대상자 작성 전도를 기반으로 한 전도 특공대의 활동으로 이어져 2005년 10월 30일, 2006년 10월 29일 ‘총동전도주일’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993년 시작된 탑골 종묘 공원의 노인 전도가 교회 내에 ‘장년2부’로 조직되어 노인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 2세기 둘째 10년을 보내면서 ‘총동원전도’와 ‘노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첫째, 박상훈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며 전도에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수요 전도 특공대의 메시지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전하였고 교구별로 흩어져 노방 전도를 할 때도 함께 하였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니 교인들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게 된 것이다.

둘째, 당회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전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것이다. 당회 서기 김희철 장로를 비롯하여 20명의 시무 장로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위원장 김학성 장로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면서도 일일이 전도 상황을 점검하며 전도 왕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시상을 주

문하였다. 특히 실행위원장 박상철 장로를 중심으로 7월 17일(주일) '총동원전도주일 실행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0월 30일 총동원전도주일까지 '전도 진행팀'을 가동하여 초청 승낙을 받고 확인 전화하고, '설교 CD & 테이프 팀'과 '인사동 거리 음료 전도 팀', '전도용품팀' 등이 매주 교회 안팎에 부스를 설치하고 활동하여 전도의 동력을 최대화하였던 것이 결실을 본 것이다.

셋째, 수요일 전도 특공대가 최전선에서 전도를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면 어김없이 하층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며 간증하고, 합심 기도하고 나서 준비된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가지고 지정된 위치에 나아가 전도하였다.

넷째, 봄에 작정하여 가을에 초청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부활 주일을 전후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 특공대를 가동하는 등 봄에 시작하여 여름 내내 최선을 다하고 가을 추수감사주일을 즈음하여 거두어들이는 교회력에 맞추어 전도한 것이다. 40일, 50일 단 기간에 총력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꾸준히 전도한 것이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교회 주변에 사는 교인들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흩어져 사는 교인들이 많기에 단기간 전도보다는 장기간 전도가 교회의 실정에 맞았기 때문이다.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에 수도권 어디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일 년 내내 전도하였다.

다섯째,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최초에 부교역자들은 1,000명을 초청의 목표로 세웠지만 담임 목사의 목표는 3,000명이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봄엔 전도 대상자 작정 목표가 저조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2차 3차 전도대상자 작정을 초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초청 승낙자를 받는 것도 1,2,3차로 나누어 최선을 다하고 확인한 결과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여섯째,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전도에 총력한 것이다. 구역이나 주일학교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한 것이다. 각 구역이 구역 예배로 모일 때 구역원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열심 있는 구역들은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였다. 유치부로부터 중고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각 주일학교도 자체로 목표를 정하고 전도하였다.

일곱째, 10.30 총동원전도 주일 당일 예배와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다. 예배 순서와 각 팀의 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승동교회의 실정에 맞게 기도하며 준비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다. 외부 초청 강사의 순서는 제외하고 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순서를 진행하였다. 청년부 성극팀과 엘림 찬양단, 할렐루야 남성 중창팀 등이 기대 이상으로 잘 준비하여 공연하고 찬양하였다.

여덟째, 기존의 전도 활동을 무시하지 않고 더욱더 활성화시킨 것이다. 총동원전도가 있기 전에 해 오던 전도활동은 매주 각 남녀 전도회의 인사동 노방전도와 장년2부의 메달 토요 전도, 청년들과 제1남녀전도회를 중심으로 한 인사동 찬양 전도 등이 있었다. 이전에 행하던 이러한 전도 활동들이 '인사동 거리 음료 전도팀'으로 거듭나 활동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전에 장년2부 교사들만 하던 '장년 2부 탑골 종묘 공원 전도'에 전도 특공대원들이 가세하면서 더 많은 노인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10.30 총동원전도 다음 주일 62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였고, 연말까지 매주 10여 명 정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30 총동원전도주일 기도제목 가운데 하나는 "3,000명 초청, 2,000명 등록, 1,000명 정착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하나는 "결신하고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 성장하며 정착하게 하옵소서."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실제로 3,480명을 초청하였고, 장년2부까지 포함해 2,153명이 당일 등록하였다. 문제는 1,000명 정착인데, 2005년 연중 등록자가 520명이니 1,000명 정착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다. 당시 승동교회는 전도부가 전도하여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부에서 5주간의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마치면 훈련 양육부에 양육을 받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양육 훈련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전도와 등록, 새가족 공부와 양육 훈련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0.30 총동원 전도하여 결국 300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였지만,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데까지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결국, 10.30 총동원전도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전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절대 작지 않은 성공이었다.

## 제 5 장

## 21세기 한국 상황과 승동교회의 전도 전략

## 제 1 절 200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상황

2005년 승동교회가 ‘10.30총동원전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그해는 한국 기독교에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이었다. 통계청이 2005년에 시행하여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불교는 3.9퍼센트 증가했고, 천주교가 74.4퍼센트 증가했지만, 개신교는 1.6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720,000명으로 불교는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가톨릭은 지난 10년 동안 74.4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통계청은 천주교 신자 수가 1995년에는 2,951,000명이었는데 반하여 2005년 11월 1일 현재 5,146,000명이니 지난 10년 동안 2,195,000명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개신교 신자 수는 1995년 8,760,000명에서 2005년 11월 1일 현재 8,616,0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144,000명이 감소하였다.<sup>123)</sup>

2006년 5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왜 천주교 신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김종서 교수는 한국 천주교가 젊은이들의 호감을 얻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는 교황청과 각 교구의 지휘를 받는 일사불란한 천주교회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들었다. 둘째는 천주교의 청렴성을, 셋째는 과거 군사 정권 시기에 인권 문제들에 대하여 천주교가 조직적으로 저항해 정의의 종교로 비친 것이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다 됐다고 하였다. 넷째는 장례를 조직적으로 돕는 등 관혼상제 의례와 관련하여 유연하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유교 문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고, 다섯째는 다른 종

123) 2006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



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호감을 샀다고 하였다. 한국 천주교의 이러한 실천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점차로 알려졌고, 그들이 천주교에 호감을 느끼게 된 결과 지난 10년간 천주교 신자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sup>124)</sup>

한편 한국의 한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입학 당시 개신교에 다녔던 학생이 4년 후 졸업할 때 천주교나 불교로 옮긴 경우를 모은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가장 많은 대답은 세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 개신교는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여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교세 확장과 물질 축복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돈 문제, 윤리 문제, 세습 문제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목사의 질이 낮다는 것이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젊은 학생들의 대답을 정문일침(頂門一鍼)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천주교로 개종한 학생들의 대답이기에 개신교의 단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단점들은 개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개종을 경험한 학생들이 느낀 단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대답은 이 땅의 개신교 교회에게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를 던져준다.<sup>125)</sup>

그동안 천주교가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신교가 크게 성장할 때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다가 최근 10년간 급하게 성장한 것은 그들의 선교 방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변해서 천주교에 맞추어진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 이후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리드하기도 하고,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단지 최근 10년 동안 이 흐름을 놓치고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시대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sup>126)</sup>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단순히 성장이 정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로 봐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성스러운 종교의 영역마저도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양과 수의 측면에서

124) 조성동, 정재영,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에영키뮤니케이션, 2007), 32, 33.

125) 정숙희,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서울: 홍성사, 2007), 14.

126) 조성동, 정재영,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71.

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성장이 정체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됐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장이 정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기인 것이다. 교회가 작고 그 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면 위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충실하여 비종교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공신력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자신의 정체성의 바로 보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한국학의 전문가인 탁석산을 통하여 조선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자 한다. 탁석산은 조선과 결별한 한국이 최근 100여 년 동안 걸어온 길을 생존-생활-행복-의미의 시대로 구분한다.<sup>127)</sup> 이 네 가지 시대는 한국의 문화적 변동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복음이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열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좋은 통찰을 보여준다.

첫째, 생존의 시대는 조선의 몰락부터 1961년 군사 혁명까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는 건국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쫓던 시기였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요령껏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다. 이때 기독교는 근대적 문명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시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적 유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풀어줄 실체였으며 가장 고차적인 종교였다. 이러한 생존 동기는 인간에 결핍된 필요를 채우려는 기복신앙의 확산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당면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따라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교회의 원조를 대변하는 사회구호 단체였으며, 이는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up>128)</sup> 이때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복음은 최권능(봉석) 목사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외침으로 내세를 약속하는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sup>129)</sup>

둘째, 생활의 시대로 이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가동된 박정희 정권부터 문민정

127)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8), 34-44.

128) 김선일, *전도의 유산* (서울: SFC, 2014), 274.

129)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172.

부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산업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갈망하게 되었다. 생존에 여가를 더하면 생활이 된다. 산업화, 도시화의 풍토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립적인 삶 이상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만한 준비도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오랜 빈곤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담은 부흥집회, 또한 병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는 치유 신앙 및 기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60, 70년대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 상황은 사람들의 안정 심리를 촉발해 종교에 기대게 했다.<sup>130)</sup> 이때를 대표하는 전도는 ‘사영리’일 것이다. 사영리의 원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차원으로 복음의 의미를 국한하지 않고, 현실에서 영향력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다. 복음은 내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인생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행복의 시대다. 이 시기는 20세기 말까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에 접근하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열망을 표출한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이 그 대표적인 형태다. 이는 한국에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풍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를 접하게 되고, 행복한 삶이 화두가 된다. 이때 기독교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서서히 중산층 신도들의 안정과 자기존중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비록 이 땅 위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고독은 더 심화된다. 이 동안 경배와 찬양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은혜를 받는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또한, 성경을 개인에게 적용해 자기를 돌아보며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큐티 운동도 활성화된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가 일반 신도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sup>131)</sup> 이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전도 모델 가운데 하나를 김선일은 ‘고구마 전도’로 본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복음을 각 사람이 수용한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수용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델인 것이다.

130) 김선일, *전도의 유산*, 275.

131) 김선일, *전도의 유산*, 276.

넷째, 의미의 시대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가 의미 추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외적 조건의 충족을 통한 행복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집과 돈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과연 나에게 인생이란 무슨 의미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 남을 위해 사는 삶인 봉사와 기부가 널리 퍼지고, 동호회를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직 의미추구는 절반의 성공 밖에 거두지 못하고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 의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대 정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영성적 추구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일 것이다. 영성 훈련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불교의 사찰 체험, 천주교의 피정이 대중에게 개방됨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의미 추구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묵상과 영성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현대적 찬양과 문화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하던 예배에서 경건하며 내면을 깊이 있게 관조하는 예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성훈련과 복종과 섬김이 구현되는 예배 갱신을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음 전도의 과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과거의 전도가 천당, 행복,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깊은 차원의 인생 가치를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sup>132)</sup>

김선일은 의미의 시대의 전도의 키워드는 ‘공동체’와 ‘여정’으로 본다. ‘공동체’라 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요, ‘여정’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색과 경험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섞으면서 배우고 느끼고 의지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와 여정은 불확실한 시대에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여정 전도는 전도 사역에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전도와 공동체 소속을 동시에 추구하기에 집회 전도나 노방 전도에서 늘 문제로 지목되는 후속 양육의 부재를 해결해 준다. 또한, 여정 전도이기에 단번에 결신을 강요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함께 탐구하며 신앙에 이르는 점진적인 회심 모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sup>133)</sup>

132) 김선일, *전도의 유산*, 277.

133) 김선일, *전도의 유산*, 281-282.

## 제 2 절 설립 2세기 승동교회의 전도 사역의 과제와 방법

승동교회는 태동기 당시 문화로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양반과 백정과 같은 하층민이 서로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21세기 승동교회는 대기업의 회장으로부터 종로거리의 노인들과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서울 동서사방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3대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이 마당에<sup>134)</sup> 승동교회가 21세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 구현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으며,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개인을 거듭나게 하여 새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 사역은 신자의 신자 됨이며 교회의 교회 됨이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교회의 주요 사역인 말씀 선포, 교육, 예배, 천교, 봉사가 모두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사역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와 신자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되는 것이다.<sup>135)</sup>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것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개 교회 자체의 부흥과 성장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개인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롬1:16). 이 구원

134) 2015년 2월 3일자, 코리아타운 데일리. 비종교인이 호감을 느끼는 종교- 불교(25%), 천주교(18%), 기독교(10%) 순, 종교별 인구분포- 불교(22%), 기독교(21%), 천주교(7%) 순

135) 김선일, *전도의 유산*, 41.

의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기 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개 교회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고 나누는 교회로 이 세상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과 개 교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승동교회의 전도 사역의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측면이다.

첫째, 신자 개인의 측면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도는 복음을 믿고 변화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도자 개인이다. 개인적인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개인 전도는 아주 효과적이다.<sup>136)</sup> 예수님께서도 개인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개인 전도하였다. 승동교회를 설립하신 사부 엘 무어 목사도 개인 전도하였다. 다른 선교사들이 의료 사역이나 학교 사역에 주력할 때에 그는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순행하며 전도하였다. 지금도 적지 않은 승동교회의 교우들이 개인 전도하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이때 신자 개인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거듭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전도자 개인의 말과 행동의 일치와 신앙과 생활의 일치는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인 전도의 내용은 곧 개인의 신앙 이야기이다. 이 신앙의 이야기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사실에 따라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진술해야 하며, 반대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과장을 피해야 한다.<sup>137)</sup> 그리고 결코 개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일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136)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175.

137)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328.

1)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이야기이다. 나는 과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혹자는 모태로부터 혹자는 어린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아니면 노년에, 저마다 다른 계기로 기독 신앙을 갖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은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아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계기를 꼼꼼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처음 부르심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형이 교회에 다니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석양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강변도로에 차를 세우고 바라보다가 순간 대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다녔는데 학교 찬양단의 찬양에 은혜받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고된 훈련 중 교회로 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특히 장남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잘 걷지 못하여 손수레를 타고 옆집 사람이 초청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강사 목사의 기도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각자 개인마다 다르다. 저마다 우연하고도 사소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생활을 구분하는 분수령이 된다. 예수 믿기 전후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그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생활의 증거들이 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이 개입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마다 잘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의 확실한 이야기로 삼을 수 있다.

2) 성령님으로부터의 회심 이야기이다. 회심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종교적인 의미심장한 변혁의 이야기

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회심은 마음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과 돌아섬과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며 자신의 문화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각과 이해와 언어와 대화를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점진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으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슬퍼하며 하나님이 없이 아무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예수님이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라고 한다. 그는 매일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그는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 혹자는 지옥이 실제로 비참한 곳으로 인식하며, 천국이 자기의 집이요,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게 된다고 한다. 혹자는 성경이 전에는 다른 책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에서 보내온 편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된 책이라고 믿게 된다고 한다. 그는 성경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법칙이 되고, 성경의 약속은 그의 영혼에 영생을 말해 준다고 한다. 혹자는 악인들이 전에는 그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의 슬픔이 된다고 한다. 그는 전에는 그들의 죄악을 비웃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자세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혹자는 전에는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 혹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개인의 회심 이야기는 복음 전도에 좋은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회심이든 점진적인 회심이든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체험된 개인의 회심 이야기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3) 예수님으로부터의 기도 이야기이다. 신자의 부르심과 회심 이야기는 개인 전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용이 된다. 이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전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인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호흡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수직적인 예수님과 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가까이 맞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특별히 불신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발점이 된다. 전도는 기도 속에서 불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야기식의 개인 전도의 예로 필자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에 이끌려 교회를 출입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당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신입반을 돌보셨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적힌 카드를 주면서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라고 하셨다. 그런데 주기도문보다는 사도신경이 더 좋아서 사도신경을 먼저 외우며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여름 수련회에서 강사 전도사님의 복음 설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이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날 때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밑에 남동생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그의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다 보니 어렵지 않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 바로 위의 누나는 마침 중고등학교 모두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어 합창단에 들어가 성가도 부르고 하다가 이웃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신앙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장남인 형이었다. 우리 집은 종손 집안으로 거의 2달에 한 번은 제사가 있었다. 자신은 종손으로 조상 제사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을 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동생과 함께 형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나의 이 말을 들은 형은 잠시 멍하니 생각

하더니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 그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만 제사를 지낼 때 너희는 옆에 서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사 때마다 옆에 서서 기도했다. 형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우리 가족이 한 믿음을 갖고, 조상 제사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는 7년 후에 형이 군대에 가서 고된 훈련 중에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형이 제대한 후 우리 집안은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장남인 형이 예수를 믿게 되자 홀로 되신 어머니 또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37세에 홀로 되신 어머니는 술한 고생을 하셨지만, 예수 믿고 3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생활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다.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신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의인 아혼아흠을 인하여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신 가족, 친구,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공동체 측면이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 교회의 과거 역사와 현재 처한 상황과 문

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승동교회는 과거에 좋은 전도의 역사가 있다. 사무엘 무어 목사는 순행 전도와 교회 및 예배 처소 설립을 기초로 어린이, 여자, 하층민, 양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광안련 목사는 소학교를 세워 어린이를 전도하고 청년 면려회 운동을 활성화하여 청장년들을 전도하였다. 일제 박해 기에도 어린이와 맹인 전도를 하며 슬기롭게 전도하였다. 해방 이후 청년 면려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전도하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봉사하고 전도하였다. 일만 교회 운동으로 민족 복음화가 대두되었을 때는 교인 배가 전도 운동에 앞장섰으며,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여러 사회 지역 기관들을 도우며 직간접으로 전도하였다. 2005년, 2006년 승동교회는 장년2부 노인 전도와 태신자 총동원 전도 운동을 시행함으로 절대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승동교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현재 이 시대 상황과 문화에 맞게 과연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재언하고자 한다.

1)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에게 개인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전도 방법이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강권하여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이래 이 전도 방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불신 영혼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한두 사람이 하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전도 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전도 위원회가 모여서 전도 행사나 준비하여 진행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전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을 기획하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데에 전도 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전도의 동력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도와 등록과 환영, 새가족 공부와 훈련 양육, 교구 구역 편성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전도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도 은사가 있는 교우들을 발탁하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전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도와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전도팀을 구성하여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팀은 전도의 동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팀이다. 테신자 총동원 전도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특공대의 역할이 큰 몫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전도특공대는 교회를 알리고, 노방 전도를 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앞으로 전도특공대는 의미의 시대에 걸맞게 이름을 바꾸고, 교회 전체를 전도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매주 모임을 하되, 담임 목사가 1부 모임을 주재하고, 전도 담당 목사가 전도팀원들과 실무를 이루어가는 식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먼저 타고난 전도 은사가 있는 자나 전도 능력이 개발된 자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매년 계획된 전도 사역이 각 교구와 구역, 각 전도회와 각 주일학교, 각 성가대 및 교회 각 기관으로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교회 중심의 여정 전도를 제안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 전도자가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모두가 영적 순례자인 셈이다. 그 순례의 길이 바른 생명의 길이나, 멸망의 길이나 하는 차이이다. 전도자는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sup>138)</sup>

이런 여정 전도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회 중심의 여정 전도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전도와 교회 소속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여정 전도는 단번에 결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함께 탐구하며 신앙에 이르는 점진적인 회심의 모델을 좇는다. 여정 전도는 사람들의 삶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우선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며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교회에서는 영적 자서전, 영성 일기, 성독훈련(lectio divina) 등, 자기 수양과 내면 탐구를 중심으로 수양회 전도가 실험되고 있다고 한다.<sup>139)</sup>

138)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세세대, 2012), 45.

139) 김선일, *전도의 유산*, 381.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정 전도를 이끌어갈 훈련된 전도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세 가족부나 훈련 양육부, 구역 등의 교사나 구역장, 권찰 등을 전도자로 훈련시켜 세워야 할 것이다. 매년 여름에 열리는 전교인신앙수련회를 여정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각 전도회나 주일학교가 또래끼리 혹은 소그룹으로 여정 전도를 진행할 수도 있다. 여정 전도는 충동원전도의 단점인 저조한 정착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영적인 여정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5) 장년 2부 노인 전도를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태동기에 승동교회는 양반과 일반 백성 전도는 물론 어린이와 여자, 하층민 백성에게 전도하였다. 일제 박해기에는 슬기롭게 맹인 전도를 하였다. 100년이 지난 지금 탑골 종묘 공원의 노인들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노인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수도권 각처에서 탑골 종묘 공원을 찾는 노인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승동 교회는 노인 전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수고스럽더라도 온 몸과 맘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생존의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세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학습 반 세례 반으로 나누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되게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후손들을 축복하고, 친구분들과 서로 잘 지내시는 노인들이 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미용 봉사, 영정 사진 찍어 드리기, 봄 가을 효도 관광 등도 더욱더 힘을 내어 해야 할 것이다. 신앙 상담과 아울러 법률 상담이나 의료 상담,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분들 일자리 찾아드리기와 같은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생을 사시도록 전도하고 보살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예배당이나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현재 승동교회는 앞마당의 벤치와 화장실, 하층 기도실 정도를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점심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식당을 개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승동교회 주변에는 많은 사무실이 운집해 있다. 점심시간이면 주변 식당가는 거의 초만원이다. 식당 밥이 별로인 회사원

중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도시락을 펼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식당을 개방하는 것이다. 물이나 음료수, 커피, 냅킨 등은 무료나 실비로 제공하고, 좋은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때 음악은 가스펠이나 성가곡이 아닌 클래식이나 세미클래식이 좋다고 한다. 교회 주보나 광고지, 담임목사 설교 CD, 소책자 등을 놓아두는 것은 무방할 듯하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벽에 게시판을 이용하여 감사의 글이나 희망의 글들을 남기게 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이다. 이런 작은 배려에 무슨 다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하되 정성스레 섬겨야 할 것이다. 회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카페를 열어서 회원을 신청 받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승동교회는 앞마당의 벤치나 화장실과 하층 기도실 정도를 개방하고 있다.

7) 전도의 역사 유물을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로 현재가 있고, 현재는 미래의 역사를 여는 토대가 된다. 과거 역사의 유물들이 땅에 묻히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발굴하고 빛을 보게 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승동교회 역사관에 전시할 만한 유물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 무어 목사를 비롯하여 이눌서, 박안련 목사의 소장품들이나 백성춘 장로의 갓이나 도포, 백정 해방과 관련된 유물 등 귀중한 자료들을 수소문하여 발굴해내는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역대 담임 목사들은 물론 교회를 거쳐 간 중요한 인물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유물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서상륜, 여운영, 박성춘, 김원벽, 김대현, 한수산, 김인득 ...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을 발굴하여 전시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독 신앙의 구도자들이나 후손들에게 보여주며 과거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는 사업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도심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전도사역을 위한 제언

다음의 <표 3>은 한국의 도시화와 한국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 즉 교회 수와 신자의 수이다. 필자는 도심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1960년 경제 개발계획 이전의 생

존의 시대 이전에 설립된 교회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1960년의 한국의 도시화율 35.4퍼센트에 비추어 볼 때, 도시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는 1960년을 기준으로 대략 1,770여 교회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 한국의 도시화율과 교회의 외적 규모<sup>140)</sup>

년도	도시화율 (%)	교회 수 (개)	신자 수 (명)
1960년	35.4	5,011	623,072
1970년	49.8	12,866	3,192,621
1980년	66.4	21,263	5,107,000
1990년	74.1	35,869	10,312,813

그런데 1990년 중반 이후 한국의 도시화는 80퍼센트 수준에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대체로 80퍼센트 수준인데, 한국의 도시화율은 유엔 기준으로 2010년에 82.9퍼센트(한국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90퍼센트 초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된 경우이다.<sup>141)</sup>

한국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 이후 한국의 9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1990년을 기준으로 26,600여 교회가 도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도시와 도심은 다르다. 도심을 포함한 도시를 동서 사방으로 나눌 때 5,300여 교회가 도심에 있는 교회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도시는 부도심이 오히려 도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에 도심의 교회는 그 수가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논문은 도심의 전통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쓰였다. 그렇다고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승동교회의 전도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앞서 살펴본 승동교회의 전도 역사를 바탕으로 도심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40) Onlin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rta22&logNo=10158733347> 2015년 7월 1일: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177.

141) 신지호, *고개 숙인 대한민국* (파주: 21세기북스, 2014), 30.

첫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승동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파송한 한 선교사와 그의 가정의 헌신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조선인의 영혼을 사랑한 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가 교회의 시발점이었다.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적인 전도를 통하여 곳곳에 승동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와 많은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열정적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의 신자들이 전도하게 하는 것은 초대 교회 이후 기독교의 간추린 전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승동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비롯하여 박안련, 김영구, 이대영, 박일웅, 박상훈 같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승동교회의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시발점이다. 결국,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다. 교회마다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전도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과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에 서로 갈등적인 세계관을 자아내는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다. 교회가 '우리에게 오라.'는 철학으로 운영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교회가 주변화 되어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Eddie Gibbs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에서 선교 전략으로 심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교회가 불신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을 밖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교회 앞마당으로 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한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 전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 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42)</sup> 그리고 전도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교회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하라고 한다. 전도자가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 전도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고전9:19~23)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142)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361.



아니라 이 세상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sup>143)</sup>

다수의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기에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며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영국의 한 교회는 교인들을 세 개의 전략적 그룹으로 분류하여 건강, 교육, 그리고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생활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기쁨을 나누고,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이 생겼을 뿐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44)</sup> 이처럼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 현장 속에서 여러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음 전도의 넘쳐나는 열정은 국내 전도에서부터 해외 선교로 나타나게 된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전도자 부디의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 반도에까지 이르러 생명을 바쳐 기도하며 전도하였던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후에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해에 노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노회가 하나뿐이었기에 “독노회”(獨老會)라 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따라 설립된 독노회의 전도부를 설립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인 목사 중 한 분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1916년 독노회는 승동교회의 동사 목사인 이여한 목사를 동경 유학생 전도 목사로 파송하였다. 6.25 직후 승동교회를 담임한 이대영 목사도 1922년 중국 산둥지방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30여 년간 사역한 분이다. 승동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에 주력한 것은 박상훈 목사가 부임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은 때부터이다.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에 단독으로 송균호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이래 현재는 파송 선교사 네 명과 12분의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넘쳐나면 선교를 하게 된다. 오늘날 선교는 아주

143) Eddie Gibbs, *백스트 처치*, 286, 289.

144) Eddie Gibbs, *백스트 처치*, 362.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국에 온 노동자나 기업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전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본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선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에 퍼져있는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 꼭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더라도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의 중점 사역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역에 협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이 마실 물이 귀한 마을에 우물을 파서 기증하며 전도할 수 있다. 케나다 원주민의 전도를 위해 설립된 선교적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함으로 도울 수도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해외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도와야 할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외 선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들은 각기 나름대로 해외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음 전도자를 발굴하고 전도 훈련을 하라. 복음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리더십 연구가인 존 맥스웰이 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당신은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가?”라는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타고난 재능으로 영적 리더가 된 사람은 10퍼센트, 위기를 통해서 리더가 된 사람은 5퍼센트, 다른 리더의 영향으로 리더가 된 사람은 85퍼센트라는 조사 결과를 내어놓았다.<sup>145)</sup> 이것은 리더는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도 부분에서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자가 된 사람은 열 명이면 한두 명 정도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도자는 다른 전도자의 영향을 받아 전도자가 된다. 2005년 송동교회 전도 특공대에 참여한 남자 대원 14명, 여자 대원 63명, 모두 77명 중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한 4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146)</sup> 대부분 특별한 전도의 은사는 없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영혼 구원의 열정과 믿음으로 전도대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각 교회는 전도자에 대한 인적 자원을 살펴보고,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145) John C. Maxwell, *리더십 21가지 법칙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홍성화 역 (서울: 청우, 2005), 196.

146) 전도 대상자 100명 이상을 작성하여 50명 이상을 인도한 4분, 김갑순, 장천숙, 황명익, 홍경자.

기도하며 전도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가 각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동력이 전도가 되어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굴해 그들이 겸손하게 앞장서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 교인들을 위하여 전도 부흥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 교인 중에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영혼 구원의 열정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훈련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복음 전도대를 운영하라. 교회가 전도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도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세워나가면 자연히 복음 전도대를 운영하게 된다. 복음 전도대의 대장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좋다.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부교역자가 할 수도 있고, 장로나 권사 집사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전도의 은사자이든 아니든 개발된 전도자들 전도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높은 리더를 세워야 한다. 전도대의 대원들은 교회의 조직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구역이나 교구, 교회의 각 부서나 위원회, 각 교육부서나 교회 기관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도대는 교회 안에 하나의 부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전도대 따로, 교회 조직 때로가 되어선 안 된다. 교회의 다른 부서와 유기적이고도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전도의 동력이 교회 내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

전도대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든 전도해야 한다.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든, 학교 앞에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든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맞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돌아와 서로 보고하고 격려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도대를 통하여 교회 내에 전도의 동력이 흐르게 하고, 교회 밖에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도대에 속한 전도자들을 교회 각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사가 전도대원이면서 제3여전도회 회원이며, 성가대 대원이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자. 그러면 한 집사는 제3여전도회나 성가대, 주일학교에서 섬기면서 전도의 가치를 심어주고, 교회적인 전도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회원들이나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독려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교회가 전도의 동력으로 움직일 때에 교회의 각 부서도 전도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 본 교회의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하여 전도하라. 개인이 전도하든지 교회 조직이 전도하든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보다는 물매와 돌 다섯 개가 맞듯이 교회마다 그 교회의 적합한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다. 다른 교회가 전도하는 원리와 방법은 배우되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자기 교회에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2005년 승동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승동교회 나름의 방법으로 전도하였기 때문이다. 전도의 원리는 태신자 전도와 관계 전도로 하되 전도의 방법은 매주 전도대의 현장 전도와 10월 말 총동원 전도의 날을 잡아 목표를 향하여 전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도의 원리와 방법으로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전도의 동력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여기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실제로 전도하였던 것이다. 최전선에서 전도대가 현장 전도를 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여 초청 승낙을 받아놓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초청한 것이 주효하였다. 전도대의 영향을 받아 온 교우들이 봄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며 가을에 총동원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당일 3,000명 이상이 초청되고, 연말까지 300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하는 결실을 보았다. 2005년 당시 승동교회의 총동원전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후속 양육에는 그 역량을 다하지 못하였다. 총동원전도의 가장 큰 약점인 새가족 정착과 후속 양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 하겠다.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2005년의 총동원전도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교회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 것이다. 전도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도의 방법은 교회의 여건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주며 전도할 수 있다.

일곱째, 지금 시대의 가치나 여건에 맞게 전도하라. 승동교회는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그 부흥의 물결이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 박해기에는 맹인전도와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며 슬기롭게 전도하였다. 현재는 탐골

종묘 공원에 모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과 섬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시대의 가치나 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시대에 적합한 전도 방법으로 여정 전도를 앞에서 제안하였다. 여정 전도는 단번의 결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함께 탐구하며 신앙에 이르는 방법이다. 급진적인 회심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점진적인 회심 모델을 좇는 것이다. 우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여정 전도에서 중심 주제는 영성과 섬김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현재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명제적 진리가 종교적 경험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세대들은 성경의 출애굽의 경험이나 오순절의 경험이 명제적 선언보다 앞선다고 본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 영적인 순례의 길을 시작할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sup>147)</sup> 영적 탐색은 지적인 탐구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희망의 원천이 된다.

인생을 바꾸는 기독교의 영성은 핵심은 성경 묵상과 기도이다. 지나치게 지적인 성경 연구는 그의 정신을 가슴과 의지에서 분리시켜 버린다. 그러나 바른 성경 묵상은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영적인 힘을 재충전할 수 있다. 다음은 Eddie Gibbs가 추천하는 성경 묵상 방법 곧 ‘성독’과 ‘호흡기도’이다.<sup>148)</sup>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채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에 맡긴다. 그다음 성경 10-20절을 소리 나게 읽는 것인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두 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긴다. 그다음에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중요한 구절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짧고 구체적인 기도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휴식한다.

‘호흡기도’<sup>149)</sup>라고 함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영적 호흡으

147)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198-199.

148)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208-210.

149)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213-214. 호흡기도는 기독교 초기 전통 중의 하나인 켈트 기

로서의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말한다. 기독교 초기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로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동료로, 손님으로, 여행의 동반자로, 친구로, 그리고 직  
장의 동료로 성육신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  
의 존재에 대한 깊은 체험이 스며있다.

오늘날 영성이란 말은 워낙 유행한 탓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어떤 영성  
의 형태는 명상의 기술에 의존하여 무의식에 잠겨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한다. 또 다른 영성은 이상한 영적 힘에 자신을 맡기도록 충동질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이상한 영적 힘을 수용한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펼칠 수 없게끔 그 힘에 조종당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끌어내는 데 관심을 가진다. 영성은 거룩성과 관계있다. 일시적인 체  
험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매일의 삶에 충실한 것이다. 묵상, 성경공부, 침묵, 고독,  
청빈, 금식, 관조(하나님의 사랑에 조용히 침잠함), 중보기도, 단순성, 복종, 봉사, 경  
배와 찬양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이 채택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명  
확한 목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영적인 삶은 자아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비전을 붙잡는 것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결과인 회  
심과 뒤이은 성화의 길이 필요하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자아에 도취된 상태가 아니  
며, 공동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풍성한 영적  
체험은 개인이 거룩해지고 세상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sup>150)</sup>

기독교의 영성과 섬김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자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여정 전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영  
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참된 가치를 나누며, 거룩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  
이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

독교에 잘 나타나 있다. 켈트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행으로서의 인생이었다. 그  
들은 자신을 세상의 손님으로 보고 성령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들의 영성은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생활화로 꽃피웠다. 불을 피우  
고, 잠자리를 준비하며, 바느질과 뜨개질, 농장일, 요리 등을 하면서 행했던 짧은 기도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 간단한 기도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들의 일과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150) Eddie Gibbs, *백스트 처치*, 219-220.

며 기록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영적 여정에서 전도하길 바란다.

여덟째, 교회의 전도 역사를 기억하며 전도하라.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 복음을 늘 거절과 동조의 이중적 자세를 오갔다. 한국 개신교회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보다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었다. 일제 박해기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여건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었다. 심지어 6.25 인공치하에서 공산 정권에 부역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여건 아래에 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소중한 전도 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시대에 걸맞는 전도 행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쁜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 백정 해방의 포고문을 들고 어찌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100만인 구령운동에 승동교회는 앞장섰다. 1960년대 WCC 문제로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된 후에도 승동교회는 일만 신도 운동에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였다. 설립 2세기를 맞이하여 해외 선교에 주력하는 한편 2005년 총동원 전도로 전도의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 탑골 종묘 공원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잘 해왔던 혹은 잘 할 수 있는 전도의 전문분야가 있을 것이다. 각 교회마다 그 분야를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전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 왔던 사람들의 발길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찾아서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전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활 현장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길 바란다. 책임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성경 묵상과 기도로 바른 기독교 영성을 쌓길 바란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전도해야 할 것이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걸어온 전도의 발자취가 있다. 그 전도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것을 되살려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개인과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바란다.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조사 결과 천주교의 경이적인 성장에 반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너무 시끄럽고 깊이가 부족하며,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물질적인 축복에 매여 있으며, 돈이나 율리, 세습 문제 등에 있어서 목사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선교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리드해 오던 기독교가 지난 10년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학의 전문가인 탁석산은 조선과 결별한 한국이 최근 100여 년 동안 걸어온 길을 생존-생활-행복-의미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조선의 몰락으로부터 1961년 군사혁명까지의 시기의 생존의 시기에는 살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였다. 이때 기독교는 근대적 문명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며 생존의 문제를 풀어줄 가장 고차적인 종교였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문민정부 이전까지 생활의 시대에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소망을 담은 부흥집회와 기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복음은 내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인생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강조되었다. 이후 20세기 말까지 행복의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확산되며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표출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풍토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기독교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중산층 신도들의 안정과 자기 존중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경배와 찬양의 열풍이 일어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큐티 운동이 활성화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의미 추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봉사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동호회를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 한국 기독교는 영성과 섬김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지금 승동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신자 개인의 측면과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측면에서 복음 전도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개인이 전도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회심의 체험이 있으며, 이후 어떻게 기도하며 전도하였는가 등은 솔직하고 담백한 개인 전도의 이야기가 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좋은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승동교회가 현재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교회의 모든 전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 개인이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격려하는 일은 기본이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전에 교회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오늘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전도위원회든 전도팀이든 교회를 전도의 동력으로 이끌어갈 전도의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도의 조직체를 이끌어갈 리더와 따르는 전도 대원이 잘 구성되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미의 시대에 걸맞게 여정전도를 제안하였다. 겉과 속이 다른 교인이나 지교회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 바른 성경 묵상과 기도를 바탕으로 한 영성과 섬김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구도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탑골 종묘 공원 노인 전도와 같이 승동교회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도 분야는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비교적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자는 것이다. 여섯째,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과거의 전도 역사를 잊지 말고, 현재 교회 유무형의 시설들을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당이나 식당을 개방하는 것이나 과거 전도의 유물 등을 발굴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 전도의 역사 속에서 배우자는 것이고, 현재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21세기 한국 교회에 대한 전도 사역을 제안하였다. 첫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여

금 해외 선교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음 전도자들을 발굴하고 전도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복음 전도대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여섯째, 본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하여 전도해야 한다. 일곱째, 지금 시대의 가치나 여건에 맞게 전도해야 한다. 그 예로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한 여정 전도를 제안하였다. 여덟째, 각 교회의 전도 역사는 기억하며 전도하라는 것이다.

## 제 6 장

###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로 구분해놓았다.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전 15:3-5).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생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이 전하여짐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가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으면 본질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회심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으로 구분해 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자기 문화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심은 사도 바울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열한 제자들처럼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다. 이런 회심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은 자들이 일정한 곳에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룬다. 이런 게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심이 되어 왔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숭동교회는 1893년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사무엘 무

어 선교사의 복음 전도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는 순행 전도와 개 교회와 여러 예배처소 개척 설립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그 결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백정 해방이라는 놀라운 사회 개혁의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박안련 목사도 순행 전도와 소학교 전도 사역과 청년 면려회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그 결과 서울 중앙의 대표적인 예배당을 건축하고, 마침 1907년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이 서울과 경기 일원으로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인 목사로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이양된 후 김영구 목사는 사경회를 통하여 전도 운동을 펼쳐나갔고, 청년 면려회 전도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박해할 때도 승동교회는 맹인 전도 사업과 유치원 어린이 전도 사업을 하면서 슬기롭게 전도하였다. 1959년 한국 장로교회가 승동 측과 연동 측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보수 개혁 신앙을 지켜온 승동교회는 이후 청년 면려회 전도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였다. 1969년 부임한 박일웅 목사는 일만 교회 운동에 발맞추어 목회를 전도의 동력으로 이끌었다. 설교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행하여 그 결과 배가를 이루었다. 그 성장의 저력으로 개척 교회들을 지원하고, 여러 기관을 지원하며 직간접적으로 전도하였다.

승동교회가 설립 2세기를 맞이하며 박상훈 목사가 부임하여 처음 10년 동안은 해외 선교에 주력하였다. 그 이후 10년 동안은 전도에 주력하였다. 2003년 ‘다모임 주일’을 시작으로 2005년 10월, 2006년 10월에 총동원 전도주일을 시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기존의 전도 행사를 기반으로 하되 전도의 원리는 관계 전도와 태신자 전도로 하고, 전도의 방법은 총동원 전도를 집목한 결과이다. 다른 교회의 전도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하기보다는 본 교회에 맞게 적용하여 장기간 교회력에 맞추어 전도하였다. 이에 담임 목사가 전도의 모범을 보이며, 당회와 전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회 모든 부서를 가동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최전선에서 전도 특공대가 지역을 나누어 현장에서 노방 전도하고, 온 교우들을 독려하여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초청 승낙자를 받는 등 초청 전도하였다. 초청 목표는 과하게 잡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총동원 전도 주일 당일 예배와 행사의 세세한 부분도 하나하나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목표를 3,000명 초청에 3,480명이 초청되어 초과 달성하였다. 연중 1,000명 정착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해 등록자가 520명이 되었다. 총동원전도 주일 이후 등록자는 300여 명이였다. 즉 초청하여 예배당에까지는 인도하였지만 정착하여 새가족이 되는 정착률은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5년 총동원 전도를 이후 송동교회는 계속 당시와 같은 방법과 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새가족 초청 전도를 진행해 오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이 마당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신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전도의 과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자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야기식의 전도를 제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회심할 때에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하였는지, 개인의 신앙 이야기가 전도의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공동체로서 송동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시대를 초월한 인간관계 중심의 개인 전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전통과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가 옆에서 존재하는 21세기에 송동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진 이 시대에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불신자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위원회는 교회의 조직들이 전도의 동력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도 현장에 가는 전도대가 가동되어 전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의미의 시대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정 전도를 제안하였다.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서로 의미 있는 가치를 나누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송동교회만이 할 수 있는 탑골 종묘 공원의 노인들을 위한 전도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현재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 과거 전도의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에 되살려 그 의미를 찾아가며 전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자라나서 살다가 결국 인생의 여정에 있다. 개 교회는 지마다 과거의 역사가 있고, 현재의 역사가 있으며, 미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써 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역사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먼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전도는 100퍼센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100퍼센트 전도자가 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전도해야 할 것이다. 전도 없이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는가. 복음 전도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해외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면 이웃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 열정이 미치기 마련이다.

넷째, 전도 은사자들을 발탁하고, 전도 훈련을 하라. 전도 은사자들을 발탁하고, 그들을 위한 훈련과 전도대 그리고 전 교인을 위한 전도 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음 전도대를 운영하라. 전도 대원은 현장이 있어서 실제로 전도해야 한다. 전도 대원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전도의 동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각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나 영역을 개발하라. 각 교회의 구성원이나 위치, 여건에 따라 해야 할 전도의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송동교회 탑골 공원의 노인 전도처럼 각각의 교회가 전도 방법이나 영역을 개발하여 전도하길 바란다.

일곱째, 현재의 가치나 여건에 맞게 전도하라. 의미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맞게 여정 전도를 제안하였다. 성경 묵상과 기도로 바른 영성을 쌓으며, 거룩한 영성과 섬김으로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서로 참된 가치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과거의 전도 역사를 잊지 말고 전도하라. 초대 교회 사도들의 전도 행전을 무시하고 전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각 교회의 전도 역사는 성령께서 각 교회에 허락한 전도 행전이다. 긍정적인 부정적이든 전도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에 되살려 아름다운 전도의 행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

##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승동교회와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의 전도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전도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한 연구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2001년부터 만 6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로 승동교회를 섬긴 덕택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지난 122년 동안 승동교회의 과거 전도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전도 행진 속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의 전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도 방향을 전도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식의 개인 전도와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신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전도하며, 의미의 시대에 영성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여정 전도를 강조하였다.

## 제 3 절 연구의 적용 가능성

첫째, 전도자 개인의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이다(벧전3:15). 전도는 결국 전도자 개인이 하는 것이다. 전도는 100퍼센트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100퍼센트 전도자의 사역이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선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조선 땅에 뿌를 묻는 것이다.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이 시대라고 하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 당시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전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도자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경험, 곧 회심한 이야기는 그것이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개인이 전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이야기가 된다. 이 회심 이야기는 전도자가 외우지 않아도 전도 대상자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심 이야기는 신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불신자에게는 뭔가 다르다는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매개체로 영적 순례의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식의 전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생활 현장에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전도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개

척 교회로부터 중대형교회까지 거대한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이다(딤후2:2).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개발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나 전도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찾을 수도 있고, 현재 주변 여건 속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찾을 수도 있다. 도심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쉽다. 그러나 도심에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맞게 전도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생존의 시대를 살아왔던 노인층에게는 그들을 정중히 모시고, 예배드리며, 음식을 대접하고, 신앙 교육을 하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친절을 베풀며 섬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생활의 시대와 행복의 시대를 거쳐 이제 의미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장년들에게는 그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 인생의 순례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신앙의 영성을 추구하는 여정 전도는 지역별로 나누어진 구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연령별로 나누어진 전도회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같은 세대에 같은 생각과 의미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척 교회든 중대형 교회든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전통과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교회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대한 그리스도인 개인과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전도의 행진이 계속 되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1. 국문 서적 (신문과 홈페이지 포함)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김계웅. *기도편지*. 2011년 5월.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김선일. *전도의 유산*. 서울: SFC, 2014.

\_\_\_\_\_.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세세대, 2012.

김수진. *초기 한국교회 100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_\_\_\_\_. *총회를 섬겨온 일꾼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김영재. *한국교회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4.

김요나. *총신90년사*. 서울: 양문, 1991.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갑오경장.”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 서울: 동아출판사, 1988.

박상훈. *십자가와 부활*. 서울: SNSmedia, 2010.

박성준. *선교편지*. 2011년 3월 5일.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박현성. *전도형 인간이 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승동교회 교인생활수첩. 2010년 판.

승동교회 110년사 편찬위원회 편. *승동교회 110년사*. 서울: 에펜에쓰미디어, 2004.

*승동교회 백년사*. 서울: 승동교회, 1996.

승동교회 장년2부. 2003년 5월 11일 자.

신지호. *고개 숙인 대한민국*. 파주: 21세기북스, 2014.

안승오. *세계 선교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문화사, 2010.

예수교회보. 1913. 3월 4일 자.

- 이덕주. *새로 쓴 개종 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_\_\_\_\_. *한국교회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09.
- 이주영, 강문석. *개인전도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이호우.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 1995.
- 조성동, 정재영.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7.
- 정성환. *승동교회 충동원 전도주일 백서*. 승동교회 자료철 미간행, 2005.
- 정숙희.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서울: 홍성사, 2007.
- 정준모.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은혜기획, 1999.
-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8.
- 국민일보, 2001년 4월 3일 자.
- 중앙일보, 2006년 5월 26일 자.
- 코리아타운 테일리, 2015년 2월 3일 자.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rta22&logNo=10158733347> (세계관과 사회학)
- <http://maranathavc.org> (마라나타비전교회)
- <http://jangro.treem.kr/Jmissions/detail.htm?aid> (한국장로신문)
- <http://www.bl.sc.kr/bl/subIndex/27> (국립 서울맹학교)
- [http://www.daegil.net/church/info\\_history.html](http://www.daegil.net/church/info_history.html) (대길교회)
-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222925.html> (한겨레신문)
- [http://kcm.kr/dic\\_view.php?nid=39482](http://kcm.kr/dic_view.php?nid=39482) (한국컴퓨터선교회)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8> (기독신문)
- <http://www.seungdong.or.kr/pastor/html/01-2.asp> (승동교회)

## 2. 번역 서적

- Baxter, Richard.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박금산 역. 서울: 지평서원, 2009.
- Choung, James. *넉킨 전도 (True Story)*. 이지혜 역. 서울: IVP, 2009.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 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 Gibbs, Eddie.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_\_\_\_\_. *초대교회의 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 Hanks, Billie. *매일전도 (Every Evangelism)*. 유용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Ladd, George E.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Little, Paul. *이렇게 전한다 (How to Give Away Your Faith)*.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1.
- Kaiser, Walter. *구약성경과 선교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서울: CLC, 2005.
- Maxwell, John C. *리더십 21가지 법칙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홍성화 역. 서울: 창우, 2005.
- Mcintosh, Gray, and Martin Glen. *전도정착 완전정복 (Finding Them, Keeping Them)*. 김진기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8.
- Mittelberg, Mark. *전도 바이러스 (Building A Contagious Church)*.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Peace, Richard V.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 Pohl, Christine D. *손대접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정옥매 역. 서울: 복이있는사람, 2003.
- Richardson, Rick.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Inviting Friends on a Spiritual Journey Reimagining Evangelism)*.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 Sweazey, George. E. *교회 전도학 (The Church as Evangelist)*. 천병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Sweeting, George. *전도의 비결 (How to Witness Successfully)*. 박제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 Torrey, R. A.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How to work for Christ)*. 윤지영 역. 서울: 말씀보존학회, 2005.
- Watson, David. *복음 전도 (I Believe in Evangelism)*.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 3. 외국 서적

- Clark, C. A. "Seoul Central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06).
- The General Report of Station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Seoul Station 1907.
- General Reports of stations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1899. 23.
- General Reports of stations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1906. 15.
- W. G. Cram, "The Revival in Songdo."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Vita of  
Sung Hwan Jung

Present Position:

Professor & Dean of Students of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nd Seminary of Los Angeles

Personal Data:

Birth date:	August 22, 1962
Marital Status:	Married to Hyeonin Cheang in Oct. 22, 1988 with two children, Yesam, Dawol.
Home Address:	519 S. Serrano Ave. #303, Los Angeles, CA
Phones:	(213) 703-9961
Denomination:	Presbyterian
Ordained:	October 13, 1993

Education:

B.A.:	Chongshin University, Seoul, 1988
M.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2
Th.M.:	Chongshin Graduate School, Seoul, 2002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2014 to present	Professor & Dean of Students of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nd Seminary
2012 to 2014	Senior Pastor of New Life Korean Church, Florida
2007 to 2012	Executive Pastor of LA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2001 to 2006	Executive Pastor of

2000 to 2001	Seungdong Presbyterian Church Chaplain of Taesung Middle & High School, Yongin
1998 to 2000	Associate Pastor of Cheongam Presbyterian Church
1997 to 1998	Assistant Pastor of Daebong Presbyterian Church Writer of Disciples Publishing House
1994 to 1996	Associate Pastor of Daehan Presbyterian Church
1991 to 1994	Associate Pastor of Subongsan Presbyterian Church
1989 to 1990	Assistant Pastor of Hyewon Presbyterian Church
1986 to 1988	Assistant Pastor of Cheongnong Presbyterian Church